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청소년기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기 NEET 위험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하 은 솔

청소년기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기 NEET 위험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봉 주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하 은 솔

하은솔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 청소년기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기 NEET 위험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하은솔

최근 청년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표로 최근 일하지 않고 교육과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 즉, 청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과 선진국 전역에서는 16세~24세 사이의 NEET 청년들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더욱 심화됐다(Maguire, 2015). 한국의 NEET 비율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비율로 전체 청년인구 951만 명 중 약 163만 명이 NEET에 해당하며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해 왔다(OECD, 2015).

NEET의 정의는 가장 좁게는 일할 의욕이 없는 청년만을 지칭하는 것과 넓게는 구직 중이거나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기회를 추구하는 집단, 즉 취업 취약 청년층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Genda, 2007). 본 연구에서는 NEET 여러 유형 중에서도 일할 의욕이 없는 청년(do not

express a desire to work)을 NEET로 정의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NEET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일할 의욕이 없는 NEET는 그렇지 않은 NEET에 비해 진입원인이 더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구직 의사가 없는 NEET에 대해서는 게으른 태도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팽배하며, 일부에서는 빈곤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NEET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NEET를 바라보는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의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Bynner & Parsons, 2002; Thompson, 2011; Yates et al., 2011). 개인화는 NEET가 청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 내지는 의지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다(Furlong, 2006). 이와는 달리, 계층화는 여전히 가정배경과 같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이다(Yates et al., 2011). 이 관점에 의하면 NEET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경제적 요소 즉, 구조적 제약의 영향을 간과하는 것이다(Bynner, 2005; Bynner & Parsons, 2002; Thompson, 2011).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기에 이르러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한 집단이 NEET 상태에 고착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NEET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기 NEET 위험확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청년기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1~11차 자료를

토대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과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먼저, 사건사 분석의 생명표분석(life-table method)과 이산시간분석(discrete-time logit)을 활용해 NEET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이 언제인지 예측하고(연구문제1), 그러한 시점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다(연구문제2). 또한, NEET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서열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연구문제3). 변수로는, 개인화 이론에 의거한 개인특성 변수인 고교 성적, 자아개념, 미래계획유무와 계층화 이론에 근거한 가구 사회경제적 변수인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실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NEET 위험확률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NEET 누적생존확률도 달라져 [연구문제1]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만19~25세 중 24세에 NEET가 될 위험확률이 3%로 가장 높았다. 만 24세 즉, 교육에서 고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NEET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 학력이 고졸이하에 속할수록, 가구주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수록(무직,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NEET상태에 빠지지 않고 생존해 있을 확률(누적생존율)이 낮았다.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결과, Model 1-1과 Model 1-2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NEET가 될 위험이 높았다. Model 1-1에 개인특성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한 Model 1-2에서는, 개인특성변수 중 성적만이 NEET 위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고교 시절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NEET 위험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마저도 가구특성의 영향이 내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로써 [연구문제2]의 가설 중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추가로 가구소득을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 NEET에 빠지기 쉽다는 인식과 달리, 저소득(하위10%)에 비해 고소득(상위10%)에서 NEET 위험성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NEET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만이 아닌 빈곤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서열 로지스틱 분석결과,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소득과 성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과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좋을수록 더 높은 서열의 기간범주에 속할 확률의 유의하게 낮아졌다.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져 일과 학업으로부터의 배제의 위험이 시사된다. 이로써 [연구문제3]의 가설 중 일부가 지지됐다.

본 연구는 일할 의욕이 없는 NEET로 진입하는데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NEET 청년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며, 개인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특성이 향후 청년기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예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NEET 위험이 높은 시기를 예측하여 정책 설계 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청년 NEET, NEET 위험, NEET 기간, 성인이행, 개인화와 계층화, 사건사분석, 생존분석

**학 번** : 2015-22554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문제 .....	7
<b>제2장 이론적 배경</b> .....	<b>8</b>
제1절 NEET에 대한 이해 .....	8
1. 청년기와 NEET .....	8
2. NEET의 등장배경 .....	15
제2절 NEET 위험에 관한 이론 .....	18
1. 개인화와 NEET .....	19
2. NEET 위험에 관한 이론적 논의.....	22
제3절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24
1.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	24
2. 개인특성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	30
3. NEET 기간에 미치는 영향 .....	33
<b>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b> .....	<b>35</b>
제1절 연구모형 .....	35
제2절 연구가설 .....	36
<b>제4장 연구방법</b> .....	<b>37</b>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37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40
1. 종속변수 .....	40
2. 독립변수 .....	42
3. 통제변수 .....	43



제3절 분석방법 .....	45
제4절 자료구성 .....	49
<b>제5장 연구결과</b> .....	<b>52</b>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52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2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	55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	56
제2절 NEET 진입 대상의 특성 .....	58
제3절 NEET 위험과 생명표 분석 .....	62
1. 연령별 NEET 생존 및 위험확률 분석.....	63
2. 가구 특성별 누적생존확률 추이 .....	64
제4절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7
제5절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3
<b>제6장 결론 및 함의</b> .....	<b>79</b>
제1절 연구결과요약 .....	79
제2절 연구의 함의 .....	82
1. 이론적 함의 .....	82
2. 실천적 함의 .....	8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87
참고문헌 .....	89

## 표 목 차

<표1> 국내 선행연구의 NEET의 개념정의 .....	11
<표2> 본 연구에서 활용한 KEEP 자료 .....	38
<표3> 본 연구의 NEET 정의 .....	41
<표4> 변수목록 .....	44
<표5> Person data set .....	51
<표6> Person-year data set .....	51
<표7>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4
<표8> 연속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	55
<표9>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57
<표10> NEET 사례 수 .....	58
<표11> NEET 진입연령에 따른 NEET 경험기간 .....	59
<표12> NEET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1
<표13> NEET 생존 및 위험확률 .....	63
<표14>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8
<표15>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구소득 더미)	71
<표16> 청년기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4
<표17> 청년기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구소득 더미) .....	77

## 그 립 목 차

<그림1> Genda(2007)의 NEET 정의 .....	14
<그림2> 연구모형 .....	35
<그림3> 가구소득에 따른 NEET 생존함수 .....	66
<그림4> 가구주 학력에 따른 NEET 생존함수 .....	66
<그림5> 가구주 고용형태에 따른 NEET 생존함수 .....	66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청년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15년 9.2%로 최고기록을 경신한 이래 2016년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인 9.8%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체감실업률<sup>1)</sup>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2%로 나타났다.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 문송합니다와 같은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사회로부터의 소외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청년노동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일하지 않고 교육과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무직자 즉, 청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유럽과 선진국 전역에서는 16세~24세 사이의 NEET 청년들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더욱 심화됐다(Maguire, 2015). 일찍이 일본에서는 청년 NEET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족(Freeter),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 역시 NEET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의 청년무업 및 배제문제를 대변해왔다(김기현, 2005; 김미숙, 2009). NEET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 한 이유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청년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후 고용과 임금수준,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청년기의 중요 과업으로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으로는 노동공급의 문제, 인적자본의 손실 문제까지 야기 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박미희, 2014).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와서야 청년 무업자 즉, NEET에 대한 관

---

1) 체감실업률이란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실업률을 의미한다.

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NEET 청년의 증가가 있다. 한국의 NEET 비율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비율로 전체 청년인구 951만 명 중 약 163만 명이 NEET에 해당하며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해 왔다(OECD, 2015). 또한, 기존의 실업률 지표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NEET 지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취업과 실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평가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Roberts, 2011). 이러한 관심 속에 NEET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금재호 외, 2007;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NEET를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하려는 시도는 NEET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논의로 집약되며, 최근에는 실업자를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NEET를 정의하고 있다. 즉, NEET의 정의는 가장 좁게는 일할 의욕이 없는 청년만을 지칭하는 것과 넓게는 구직 중이거나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기회를 추구하는 집단, 즉 취업 취약 청년층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Genda, 2007). 그러나 이는 NEET 안에 매우 이질적인 그룹이 혼재돼 있음을 뜻한다. 누가 NEET이며, 그들의 욕구(Needs)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Furlong, 2007),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는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하는지가 모호하다. 우리보다 먼저 논의가 시작된 영국과 일본에서는 NEET 정의를 넘어 NEET 유형화의 단계에 접어들어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Eurofound, 2012; Genda, 2007; Inui, 2005), 국내의 NEET 유형화는 매우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금재호 외, 2007; 김기현, 2017; 주희진 & 주효진, 2017).

NEET 여러 유형 중에서도 일할 의욕이 없는 청년(do not express a desire to work)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NEET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일할 의욕이 없는 NEET는 그렇지 않은 NEET에 비해 진입원인이 더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대개 구직 중이거나 향후 구직의 의사가 있는 청년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더 나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인식된다. 한편 구직 의사가 없는 NEET에 대해서는 게으른 태도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팽배하며, 일부에서는 빈곤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NEET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본다.

NEET를 바라보는 상반된 견해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의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Bynner & Parsons, 2002; Thompson, 2011; Yates et al., 2011). 첫 번째는 NEET가 청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 내지는 의지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다(Furlong, 2006). 과거에는 사회적 지위, 성역할, 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에 의해 청소년기가 규정되었다(Beck & Beck-Gernsheim, 2002).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스스로 삶을 선택해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형성되었으므로 개인의 능력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Banks et al., 1992; Bynner, Chisholm & Furlong, 1997; Jones & Wallace, 1992).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열등한 배경을 가진 청년일지라도 부정적 삶의 경험을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이다(Arnett, 2006; Beck, 1986; Beck & Beck-Gernsheim, 2002).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일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 또한 개인이 일대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또한 NEET가 된 원인도 개인적인 특성 또는 기질에서 찾기 때문에, 개인을 변화시키면 일과 교육에 다시 참여하는(engaged)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Thompson, 2011).

이와는 달리, 여전히 가정배경과 같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발달체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Yates et al., 2011). 이 관점에 의하면 NEET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경제적 요소 즉, 구조적 제약의 영향을 간과하는 것이다(Bynner, 2005; Bynner & Parsons, 2002; Thompson, 2011). 모든 청년이 자신의 운명에

던져지는(thrown on one's own fate) 상황을 동등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Yates et al., 2006), 이러한 입장에서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청년이 누리는 기회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한국사회의 NEET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코호트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 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다양한 직업군의 부모들을 갖게 된 첫 세대이며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와 라이프 스타일의 분화가 당연시된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첫 세대이다. 이는 청년층이 이전 세대에 비하여 더 계층화된 기회구조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김영미, 2016).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빈곤 세습과 같은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의 악화로 계층화된 기회구조가 고착화되어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변금선, 2013). 이러한 불평등한 기회구조를 고려했을 때,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이 청년의 생애과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NEET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NEET 진입 또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축적돼 왔다(김종성 & 이병훈, 2012; 나승호 외, 2013;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Bynner & Parsons, 2002; Eurofound, 2012; Genda, 2007; Kelly & McGuinness, 2013; Noh & Lee, 2017; Shinozaki, 2012; Styczynska, 2013; Yates et al., 2010). 그 요인으로 동기부족, 학업부진과 같은 개인 특성요인부터 가구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구특성요인까지 다양하게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는 누가 NEET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는지 고려하지 못했다. NEET 청년 중 1/4만이 후 년도에 NEET에 남아있고, 3/4이 NEET의 상태를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한 번 NEET를 경험한 집단 보다는 더 오랜 기간 NEET를 경험한 집단이 고위험군, 즉 NEET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NEET를 1

년 또는 2년 경험한 집단 보다 3년 이상 경험한 집단일수록 NEET 상태에 고착될 가능성이 5배 높게 나타났다(채창균 외, 2008). NEET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시장에서 낙인(stigmatizing)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야기하며, 이와 맞물려 결혼과 출산이라는 주요 생애사건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을 높인다. NEET 상태의 지속이 초래하는 위험을 고려해보더라도 NEET 여부만이 아닌 NEET 기간을 고려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에서 25세 사이의 NEET 위험(진입)을 연구문제2에서 살펴보고, 연구문제 3에서는 NEET에 머물러 있던 기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기의 가정형편이 청년기 직업성취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Caspi et al., 1998)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가구소득이 청년기 NEET 위험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이때 가구소득은 만 18세 당시 부모가 직접 응답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가 과거 성장기 회고 시 주관적 가정형편에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여 객관적 소득 측정을 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셋째, NEET 집단 내 이질성으로 인해 선행연구가 실천현장과 정책에 던지는 함의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최근 청년 NEET에 대한 국내 사회복지학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소년 및 청년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대안모색 및 NEET 예방을 위한 임상적·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NEET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누가 NEET인가에서부터 그들의 욕구(Needs)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Maguire, 2015). 본 연구에서는 Genda(2007)의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향후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 구직 의욕이 없는 NEET (do not express a desire to work)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넷째, NEET 위험요인을 이론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설명한 연구가 부족하다. NEET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검증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비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미희, 2017). 본 연구에서는

NEET 위험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교육 및 인적자본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기에 이르러 NEET 위험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행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및 직업성취를 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청년 NEET 현상에 주목한다. 청년 NEET의 원인으로서는 현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기회구조의 불평등을 보기 위해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주요하게 검증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요인이 청년기 NEET 위험과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요인으로 만18세 시점의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실업여부) 변수와 개인특성(성적, 자아개념, 미래계획여부) 변수의 영향을 주요하게 살펴본다. 본 연구는 연령별(연도별)로 독립변수의 NEET 위험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추정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문제1]에서는 NEET 위험확률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검증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2]에서는 이러한 연령별 위험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에서는 반복적으로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한다.

연구문제1. 청년기 NEET 위험확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청년기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NEET에 대한 이해

#### 1. 청년기와 NEET

##### 1) 청년기의 정의

청년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비교적 짧고 예측가능하며 직접적이고 단순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그 기간이 연장되고 복잡해지자, 청년기를 생애과정상 새로운 발달단계로 인식하게 되었다(Erikson, 1968; Keinston, 1971; Arnett, 2000). Erikson(1968)은 산업화사회에서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았다. Keinston(1971)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사이에 청년기가 존재하고, 이 시기에 다양한 역할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Arnett(2000)은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산업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기존에는 없던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새로운 과도기적인 단계가 등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서 청년기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와는 구별하여 바라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청년기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생물학적 발달관점에서의 ‘adolescent’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상 구별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집단을 말할 때의 ‘youth’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모두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정옥분, 2004). 정옥분(2004)에 따르면 생물학적 발달 과정에서 청년기는 신체적·정신적 어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호르몬 및 성장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때 청년기는 만13세부터 25세까지를 의미하며, 중고교 시기(만13세~18세)와 고교 졸업이후 20대 초반(만19세~25세)을 구별된 단계로 보고 있다.

생물학적 발달 측면 외에도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구별된 생애시기로 보면서 이 시기의 자율성과 책임성, 사회적 권리와 참여를 강조할 때도 청년(you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김선애, 2014), 이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공식적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즉, youth)은 15~24세를 말하며, 미국 등의 비유럽권의 경우도 유사한 연령 구분을 따른다. 한국의 경우도 청년실업이나 빈곤과 관련하여 고용, 노동의 측면에서는 청년을 15~24세 혹은 15~29세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소영, 201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만19세~25세 사이의 청년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청년기를 생물학적 측면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인으로 성숙해가는 시기이자, 사회적 관점에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20대로 진입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사회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시기로 규정하였다.

## 2) NEET의 정의 및 측정

성인기로 이행하였다고 보는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이다(Coles, 2005). 그러나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이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다수 존재하며, 이 중에서도 일하지 않으며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을 가리켜 NEET라 부르고 있다.

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OECD(2015)의 정의에 따르면, NEET는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중에 학교에 다니지 않고(또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NEET 개념이 성립하려면 일반

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Noh & Lee, 2017), 첫 번째 조건은 미취업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지난 4주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단기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활동은 제외하며, 취업은 OECD와 ILO 기준에 따라 최근 1주일 이내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유급노동을 한 것을 의미한다.

NEET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으로 매우 넓게 정의해볼 수 있다. NEET 정의를 넓게 하다보면, 취업자를 제외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이 범위에 포함되어 집단 내 이질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NEET 집단 내의 이질성(heterogeneity)은 대안지표로서의 단점으로 작용한다(Inui, 2005). Eurofund(2012)는 NEET 범주를 5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이질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먼저, NEET 집단 안에는 전통적 실업자(the conventionally unemployed), 결혼·육아 또는 건강상 이유로 취업여력이 없는 자(the unavailable), 구직단념 및 비사회적 생활양식 추구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불참자(the disengaged),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유예하는 기회추구자(the opportunity-seekers), 이외의 자발적 NEET(the voluntary NEETs)가 모두 뒤섞여 있다. NEET 집단의 이질성 문제는 정책의 초점대상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Furlong, 2007). 이러한 이유로 NEET를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Maguire, 2015). NEET 정의는 각국의 정책적 관심과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구성이 달리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내의 논의에 한정해서 기존연구들은 NEET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 NEET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NEET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김재호 외, 2007;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기존연구는 ‘연령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혼자를 포함할 것인가?’, ‘실업자를 포함할 것인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누구를 제외할 것인가’의 기준에

따라 NEET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NEET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조금씩 달리하는데(금재호 외, 2007; 김영, 2009), 개념정의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1> 국내 선행연구의 NEET의 개념정의

연구자(연도)	연령	혼인상태	실업자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오민홍(2007)	20~29세	미혼자만 포함	지난1주간 구직활동 기준, 실업자 제외	가사·육아, 정규교육기관통학, 직업훈련참여
남재량(2008)	15~34세	미혼자만 포함	지난 1주간 구직활동 기준, 실업자 제외 (구직 NEET, 비구직 NEET)	가사·육아, 정규교육기관· 입시(고시)·취업학원통학
금재호 외(2007)	15~29세	기혼자도 포함	구직무급종사자, 실업자 포함	육아, 결혼준비, 군입대대기, 심신장애,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통학 <sup>2)</sup>
채창균 외(2008)	15~29세	미혼자만 포함	지난1주간 구직활동 기준, 실업자 제외	정규교육기관· 입시(고시)·취업학원통학
정연순(2013)	15~34세	미혼자만 포함	지난 1주간 구직활동 기준, 실업자 제외 (단기·일시 취업자, 구직 NEET 포함)	가사·육아, 정규교육기관· 입시(고시)·취업학원통학
노혜진· 이봉주 (2017)	20~25세	기혼자도 포함	실업자 포함 (실업 NEET, 비경활 NEET로 구분)	무급가족종사자,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심신장애, 정규교육기관· 입시(고시)·취업학원통학

먼저, 연령에 관한 쟁점은 10대 청소년과 30대 초반 연령대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이로미 외, 2010). 오민홍(2007)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완전취학률을 근거로 10대 청소년을 NEET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이 연령대는 대부분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의 연령대를 NEET로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남재량, 2008). 기존연구들은 NEET 측정시기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20대 초반을 NEET 연령으로 보고 있다. 20대 초반은 고등학교에서 상위 학교 또는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기간이며, 자신의 인적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학교, 직장 등으로부터의 배제는 인적자본 손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장으로의 연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0대의 출발선상에서의 이러한 NEET 경험은 생애과정에서 좁혀지지 않는 격차와 낙인(scarred effect)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진입이 늦어지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20대 전반을 NEET 연령으로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교에서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전환기의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서 20대 초반으로 NEET 연령을 한정하여 보아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실업자를 NEET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 또한 쟁점이 되고 있다. 실업자 포함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NEET를 일할 의욕이 없는 자발적 무업자 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취업 취약청년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이로미 외, 2010). 실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NEET를 구직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실업자를 포함하는 것은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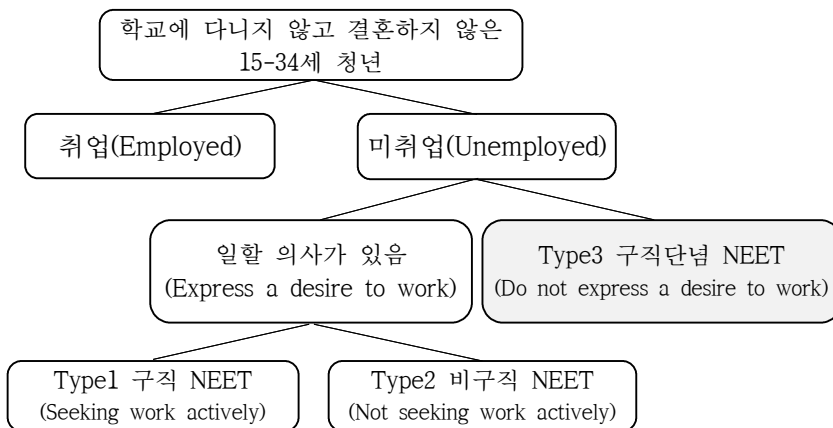
2) 금재호 외(2007)는 취업준비나 취업을 위한 교육은 NEET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통적인 실업률 지표의 한계로 포착할 수 없었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청년층을 포괄적으로 보려는 것이다. 각 사회 또는 연구자의 정책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업자를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 다만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그 내부에 매우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이 섞여 있어 오히려 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Inui, 2005; Serracant, 2014). 그러나 최근 NEET에 대한 관심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 문제에서 증폭되었고, 개념상으로도 실업자를 제외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를 포함한 NEET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박미희, 2017). 그렇다면 NEET 집단 내부의 이질적 요소를 고려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박미희, 2017). 한편, 실업자를 NEET의 범주에 포함하여 실업 NEET(구직 NEET)와 비경활 NEET(비구직 NEET)로 분류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비경활 NEET(비구직 NEET)를 구직단념자와 구직희망자로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도 있다(남재량, 2008; Carcillo et al., 2015; Genda, 2007; Noh & Lee, 2017; Styczyska, 2013).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누구를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상태는 취업이나 실업이 아닌 모든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사·육아, 교육기관통학, 심신장애, 연로(퇴직), 군입대 대기, 입시학원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합, 취업 및 진학준비(비통학)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마다 공통적으로 결혼 또는 그로 인한 가사나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자는 NEET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금재호 외, 2007; 남재량, 2008; 오민홍, 2007; 정연순, 2013; 채창균 외, 2008; Noh & Lee, 2017). 가사나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을 NEET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히 여성으로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왔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김기현, 2017). 그러나 그 이외의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르며 그 기준 또한 분명하지 않다(박미희, 2017). 그리하여 명확한 기준제시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최근 NEET를 실업 NEET와 비경활 NEET로 구분하거나(남재량, 2006; Noh & Lee, 2017), NEET내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Eurofound, 2012; Genda, 2007). Genda(2007)는 구직 중인 자(type1), 구직은 하지 않으나 향후 일할 의욕이 있는 자(type2), 구직도 하지 않고 일할 의욕이 없는 자(type3)로 구분하여 NEET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1>과 같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도 Type3 NEET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Type3 NEET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Type3 NEET는 다른 유형 NEET에 비해 진입원인이 더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대개 구직 중이거나 향후 구직의 의사가 있는 청년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더 나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구직 의사가 없는 NEET에 대해서는 게으른 태도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팽배하며, 일부에서는 빈곤이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NEET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구직 의욕이 없는 구직 단념 NEET(Type3)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1> Genda(2007)의 NEET 정의



## 2. NEET의 등장배경

전통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상태는 고용(employed) 아니면 실업(unemployed)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르러 증가한 청년실업률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구분은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였다(Furlong, 2007). 이로서 학계와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취업과 실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포착되지 않는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는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서도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Social Exclusion Unit, 1999). 영국의 보수정부는 의무교육을 마친 16~17세 청소년에게 실업급여혜택을 중단하였고 이들이 ‘교육제도권 밖에 있고 일하지 않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다.’ 하여 NEET라는 두 문자어로 명명하였다(Furlong, 2007). 원래 NEET의 기원은 Status zero로, 지위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Status A로 변경되었지만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박미희, 2017). 이러한 부정적 어감을 줄이기 위해 NEE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1999년 영국 블레어 정부의 <Bridging the Gap>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정책적 용어이다(남재량, 2013; Furlong, 2007).

1999년 영국의 사회적배제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는 학교를 졸업하는 전환기상 중요한 시점(critical point)에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 향후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당시 16~18세의 약 9% 라는 상당수의 청소년이 NEET에 해당됐고, 영국정부는 이들이 NEET가 된 원인으로 가족배경, 개인적 배경, 빈곤 등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Social Exclusion Unit, 1999). 정부는 사회적 배제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당시 일을 하지

않고 교육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정책을 공고히 해 나갔다. 즉, 당시 16~17세 청소년에게 실업급여의 자격은 주지 않고, 직업훈련의 기회만 제공한 것이다. 정리하면, 1999년 영국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서 사용되어진 NEET라는 용어는 생활보호, 질병, 부등교, 실업 등을 포함하여 교육도, 취업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는 16~18세의 청년을 의미한다(김미숙, 2009). NEET에 관한 출발점이 10대 청소년이지 20대나 30대 청년이 아니었다(김기현, 2017).

일본에서도 1997년 버블경제의 몰락 이후 극심한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청년 고용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떠도는 청년 무업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으나(김기현, 2005), 본격적으로 NEET의 개념이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김미숙, 2009). 일본에서 NEET는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며 훈련도 받지 않는 15~34세의 청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국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금재호 외, 2007; 김기현, 2005; 김미숙, 2009). 일본은 청년의 취업 문제를 다룰 때 30대 전반까지 시야를 넓혀 보는 경우가 많고 일본에서 급증한 프리터(freeter)와의 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니트의 연령 정의를 영국보다 폭넓게 15~34세로 확대하여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기현, 2005). 이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점차 늦어져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한편, 30대 초반까지 정책대상을 넓힌 것은 20대에 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이직한 후 다시 니트 상태에 놓이거나 한 번도 취업을 해보지 않고 30대까지 NEET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김기현, 2017).

한국 또한 2000년대로 들어선 이후 고용 없는 성장기의 청년실업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청년실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영국과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 NEET 지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금재호 외, 2007). 국내에서도 NEET 청년에 대한 관심은 고조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NEET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연구는 왜 NEET가 됐는지를 이론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박미희, 2017). 다음 절에서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왜 NEET가 되는지 이론에 비추어 이해해보고자 한다. 첫 장에서는 개인화 개념을 도입해 NEET가 개인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가구특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민해 볼 것이다.

## 제2절 NEET 위험에 관한 이론

무엇이 NEET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가? 본 절에서는 NEET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을 소개한다(Bynner & Parsons, 2002; Yates et al., 2010; Thomson, 2011). 첫 번째 시각은 NEET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상태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변화된 삶의 양식은 일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삶의 형태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NEET의 상태에 머무르거나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달리 두 번째 시각은 NEET는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과 같은 불평등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앞선 삶의 양식과 문화의 변화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약이 남아 있으며 청년들은 자신들의 귀속적 배경으로 인해 생애과정에서 상이한 자원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은 청년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뤄져 왔던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김영 & 황정미, 2013).

이어서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이 NEET 연구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 1.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NEET

현대사회의 지연된 성인이행 현상을 고찰한 Beck과 Beck-Gernsheim(2002)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개개인은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 성역할, 가족 등)에 묶이지 않고 개인 스스로 삶의 양식과 일대기(biography)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화 과정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ck & Beck-Gernsheim, 2002). 전통사회에서는 생애경로가 비교적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던 것과 달리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애과정은 점차 복잡하며 그 과정이 점차 개별화되었다. 이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게 된 불확실성(uncertainty)의 사회인 것이다(Beck, 1992).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은 현대사회의 청년의 지연된 성인이행과정을 적실성 있게 설명해준다. 청년의 생애과정에서 개인화 개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선택 일대기(choice biography)’를 강조하는 해석이다. 성인이행기가 길어지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일대기를 스스로 구성해야 하는 선택의 중요성이 커졌으며(김영 & 황정미, 2013),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협상(negotiation)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Banks et al., 1992; Bynner, Chisholm & Furlong, 1997; Jones & Wallace, 1992). 성인이행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Arnett(2000, 2006)은 발현성인기 이론을 주장하면서, 청년들은 개인의 책임, 성장 및 발달을 추구하면서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새 시대를 누리게 되었다고 보았다. 열등한 배경을 가진 청년일지라도 부정적 삶의 경험을 벗어나서 새로운 목표와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Arnett, 2006). 또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미루면서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없지만 일정한 자유와 독립을 누리는 기간이 늘어났으며 이전에 비해 청년들의 개인적 행위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일 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 또한 개인이 일대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기질이나 행동양식에서 NEET가 된 원인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면 다시 일을 하고 교육을 받는 참여(engaged)의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Thompson, 2011). 이러한 시각은 NEET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적 해법 즉, 개인적 특성이나 심리적 기질(psychological dispositions)에 대한 접근으로 해결하려고 한다(Uchida & Norasakkunkit, 2015). 그러나 이는 결국 사회적 위험을 개인화된 위험으로 재정의 하는 것에 불과하며(Thompson, 2011) 사회구조적인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시각도 존재한다.

Beck은 전통 사회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불확실한 사회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개인의 자원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강조하였다(Beck & Beck-Gernsheim, 2002).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자원을 성취하는데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Beck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달리 해석하는 부류도 있다. 이들에 의하면 기존의 ‘선택 일대기’ 접근은 사회경제적 요소, 즉 구조적 제약의 영향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Breen & Goldthorpe, 2001; Bynner, 2005; Bynner & Parsons, 2002; Furlong & Cartmel, 1997; Roberts, Clark & Wallace, 1994; Thomson, 2011; Yates et al., 2011). ‘개인화’는 구조적 제약의 약화나 개인적 선택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선택 일대기’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일대기(do-it-yourself biography)’가 더 적합한 개념이라는 주장이다(김영 & 황정미, 2013). 정상적이고 표준화된 생애경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개인화된 협상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굴곡지고 단절된 경로에 들어서서 개인의 노력과 일대기 구성을 통해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원이 부족한 처지에 있다(김영 & 황정미, 2013). 이는 다시 말해 청년 모두가 자신의 운명에 던져지는(thrown on one's own fate) 상황을 동등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Yates et al.,

2006). 개인화된 사회에서 직장으로 이행을 하는데 개인의 능력과 책임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은 발달 궤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Yates et al., 2006). 이러한 입장에서는 개인특성에서 NEET가 된 원인을 찾기보다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청년이 누리는 기회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Bynner & Parsons, 2002; Yates et al., 2011).

한국사회 역시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회구조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청년층은 그 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다양한 직업군의 부모들을 갖게 됐고,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큰 격차와 라이프스타일의 분화가 당연시된 사회에서 사회화의 주요시기인 청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첫 세대이다. 이처럼 청년층이 갖고 있는 가족 배경의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인해, 현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들 보다 훨씬 계층화된 기회구조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김영미, 2016).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빈곤 세습과 같은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의 악화로 계층화된 기회구조가 고착화되어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변금선, 2013). 이러한 불평등한 기회구조를 고려했을 때,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이 청년의 생애과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NEET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 2. NEET 위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앞선 논의에서 NEET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개인요인을 살펴보았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청년의 생애과정에서 기회불평등을 양산하고, NEET 위험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특성이 NEET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검토할 것이다.

지위획득이론이란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 연구의 한 갈래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서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란 계층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상대적 지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Grusky et al., 2008), 이러한 지위는 사회적 단위 간의 부(wealth), 권력(power), 위신(prestige)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Haller & Portes, 1973). 지위획득(status attainment)이란 지위를 통해 되돌아올 보상을 얻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투자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Lin, 1996b, 김동윤 외 역, 2008). Blau와 Duncan(1967)에 의해 처음 검증된 지위획득모형은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가 본인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본인의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이다. 본 모형에 내포된 아이디어는 본인의 교육적 성취마저 부모의 가구소득과 같은 배경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것이 본인의 직업 성취까지 결정 짓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획득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가구 배경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위획득이론은 주로 부모의 SES(Yates et al., 2010), 부모의 학력(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Eurofound, 2012; Shinozaki, 2012; Styczynska, 2013), 성장기가구배경(채창균 외, 2008; Shinozaki, 2012), 부모의 실직여부(채창균 외, 2008; Eurfound, 2012, Styczynska, 2013)와 같은 변수가 NEET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차용되고 있



는 이론이다.

이 외에도 인적자본이론 역시 NEET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인적자본이란 개인이 미래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 교육 및 훈련의 정도를 의미한다(장기영, 2008). Becker(1964)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양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자본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인적자본 정도에 따라 청년들의 입직여부와 그 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선호하는 인적자본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은 NEET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박미희, 2017).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이라 함은 학력, 자격증 직업훈련 등으로 파악되며, NEET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학력(나승호 외, 2013; Genda, 2007) 또는 학업성취도(채창균 외, 2008; Bynner & Parsons, 2002; Noh & Lee, 2017), 지각경험(채창균 외, 2008), 훈련프로그램 참여 여부(Styczynska, 2013), 학교중퇴여부(Shinozaki, 2012), 일 경험(Genda, 2007)을 주요하게 검증해 왔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특성 역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Evans & Heinz, 1994; Evans & Furlong, 1997). 개인이 어떠한 정체감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개인의 직업성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Arnett, 2006; Yates et al., 2011). 기존의 NEET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변수는 진로계획여부(Noh & Lee, 2007), 미래열망수준(Yates et al., 2011; Uchida & Norasakkunki, 2015)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한편,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Chandler et al., 2003; Judge et al., 1998; Stajkovic & Luthans, 1998).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Judge et al., 1998). 이러한 심리적 자원들은 NEET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직업성취, 직장에서의 성과,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만 국한되어 연구가 수행됐다.

### 제3절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특성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국내 및 국외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다. 1장에서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볼 것인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할 주요한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 1.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

##### 1) 국외 선행연구 동향

이 장에서는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순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캔거루족, 패러사이트족, 자라족<sup>3)</sup>과 같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신조어는 부모라는 환경과 NEET의 관계를 암시하며, 정적관계뿐만 아니라 부적관계를 예측하는 이론과 실증분석결과도

---

3) 캔거루 족이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청년, 패러사이트족이란 저임금 임시직 노동으로 용돈을 벌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으려는 20대 중후반의 젊은이, 자라족이란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리는 자를 의미한다.

존재한다(박미희, 2017). 부모라는 환경과 NEET 관계의 정적 관계, 즉 부모 환경이 좋을수록 NEET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검증한 연구결과는 일본의 Genda(2007)와 Shinozaki(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Genda(2007)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다. Genda(2007)는 이를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소득을 범주형 변수로 세분화 했고, 그 결과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모두 비노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2000년대 들어 발견되었다. 즉 소득의 U자형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저소득가구 청년의 일할 의욕감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언했다(박미희, 2017). 이와 더불어 Shinozaki(2012)는 성장기 경제형편이 좋을수록 고용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Eurofond(2012)는 저소득 가구의 청년은 평균 가구소득의 청년보다 NEET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부모의 학력에 있어서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데, Shinozaki(2012)는 부모의 상위교육기관 진학(highest level of school attended)이 NEET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반면, Eurofound(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저학력일수록 자녀의 NEET가능성이 1.5~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Shinozaki(2012)는 부모의 상위교육기관 진학과 자녀의 상위교육기관 진학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부모가 고학력이고 자녀가 저학력일 경우 비고용 가능성이 4.6%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두고 Shinozaki(2012)는 고학력 부모의 자녀는 높은 수준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학력 프리미엄으로 인해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는 높은 수준의 가정형편에서 자라 그보다 낮은 생계수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직업을 검증한 연구는 Eurofound(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직업만을 단독적인 변수로 검증한 연구는 가구소득과 학력에 비하여 드물다. Eurofound(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실업을 경험한 청년일수록 NEET가 될 가능성이 17%가 더 높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으로 구분해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지위(SES) 점수로 측정된 연구도 있다. Yates 외(2011)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The Registrar General Social Scale로 점수화하였다. Yates 외(2011)는 낮은 수준의 직업적 열망을 가진 이들일수록 NEET 가능성이 높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닐수록 그 부적 효과가 훨씬 증가한다고 하였다. Yates 외(2011)는 직업적 열망을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전망이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라는 직업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기대 수준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 높은 지위의 직업을 선호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이는 교육 기대와 어긋난 직업 열망(misaligned with their educational expectation)을 지닌 것이고 이들이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SES 집단의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Yates 외(2011)는 낮은 SES 집단의 직업적 열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직업적 열망 수준과 교육수준 사이의 격차를 주의해서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획득한 교육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 열망수준을 가질수록, 즉 이 격차가 클수록 분화된 전환기(fractured transitions)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NEET 청년에게 열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단순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 2) 국내 선행연구 동향

다음으로 국내의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가구소득의 영향은 국외 연구와는 달리 일관된 방향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NEET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채창균 외(2008)는 성장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정형편(경제형편)이 나쁠수록 NEET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나승호

외(2013)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NEET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지위획득이론과 연결시켜 NEET가 빈곤의 세습에 의한 결과라고 하였다. 채창균 외(2008)과 나승호 외(2013)는 모두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청년패널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Noh & Lee(2017)는 빈곤이 세대 간 이전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검증한 결과, 청소년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청년기에 이르러 고소득층에 속한 청년보다 NEET 가능성이 약 4배 정도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저소득가구에 속한 청년일수록 NEET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모의 학력 역시 NEET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승호 외(2013), 남재량(2006), 채창균 외(2008)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실행하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NEET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NEET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에 대해서 나승호 외(2013)는 지위획득이론을 빌려와 빈곤의 세습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앞선 연구결과들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NEET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반면, 김종성과 이병훈(2012)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오히려 구직활동을 할 승산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종성과 이병훈(2012)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상태(쉬었음, 구직활동)에서 구직활동을 할 승산비가 0.19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경황 상태(쉬었음, 구직활동)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가구소득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 역시 불완전함을 내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는 대학(2·4년제)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집단이 달라 전체 청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나승호 외(2013), 남재량(2006), 채창균 외(2008)는 모두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NEET화 경향이 높다고 하였는데, 나승호 외(2013)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최근 우리나라 NEET족의 증가가 고학력층 위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투자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실패한 실망실업자 등이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나승호 외, 2013).

부모의 직업위세와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나승호 외(2013)는 아버지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즉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수록 NEET 확률이 1.6%p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채창균 외(2008)의 연구에서는 성장기 때 가구주의 직업과 고용형태를 투입하였으나 가구주의 직업(단순노무직,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고용형태(가족종사자·가정주부·무직,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자영업자)의 경우 가족종사자·가정주부·무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직업에 대한 분석결과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생산직일수록 NEET가 될 확률이 각각 1.8%p 높고, 1.85%p 낮고, 1.78%p 낮았다. 고용형태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종사자·가정주부·무직에 비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자영업자일수록 NEET가 될 확률이 각각 1.13%p, 1.2%p, 1.15%p, 1.13%p 낮아졌다. 채창균 외(2008)는 보고서에서 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특이점은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관리직·전문직에 있는 부모를 둔 청년일수록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직업위세 및 고용형태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여러 유형을 더미변수로 투입하다보니 해석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분석이 요구된다.

### 3) 선행연구 결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내에서는 빈곤의 세대 간 이전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Noh & Lee, 2017).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NEET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청소년기의 경제형편이 청년

기 직업성취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Caspi et al., 1998)임에도 청년기 현재의 가구소득을 검증하여 장기적인 영향을 검증하지 못했다. 청년기 현재의 가구소득을 검증하다보니 이러한 가구소득에는 부모의 소득 이외에 청년 자신의 소득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이는 내생성의 문제를 야기해 가구 즉, 부모소득의 영향을 정확히 검증해내지 못하게 된다(Genda, 2007). 또한, 청소년기의 가구소득을 검증하더라도 성장기 회고시 주관적인 경제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응답한 것으로 가구소득의 영향을 검증하다보니 객관적 소득 측정에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만 18세 당시 부모가 응답한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NEET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남재량, 2006).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다시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위세 및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각각 유형 더미변수를 투입하여 그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더미를 투입하여 가구주가 실업을 경험하면 NEET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2. 개인특성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

### 1) 국외 및 국내 선행연구 동향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국외와 국내 선행연구 동향으로 구분하여 보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볼 변수를 도출하였다.

청소년 또는 청년 개인 특성으로 다루어지는 변수를 인구학적 요인(채창균 외, 2008; Genda, 2007; Shinozaki, 2012), 교육 및 인적자본관련 요인(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Bynner & Parsons, 2002; Eurofound, 2012; Genda, 2007; Kelly & McGuinness, 2013, Noh & Lee, 2017; Shinozaki, 2012; Styczynska, 2013), 심리적 요인(Bynner & Parsons, 2002; Noh & Lee, 2017; Yates et al., 2011)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Genda, 2007; Shinozaki, 2012; 채창균 외, 2008), 연령(채창균 외, 2008)이 존재한다. 성별과 NEET 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NEET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채창균 외, 2008),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거나(Shinozaki, 2012), 오히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가 모두 존재한다(Genda, 2007).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미희(2017)는 NEET의 정의에서 기혼여성을 포함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NEET에 가사와 육아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혼여성을 포함한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NEET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희, 2017). 연령은 채창균 외(2008)의 연구에서 24세 무렵까지는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속도는 점차 완만해지고, 24세가 지나면서 NEET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 및 인적자본 관련 요인에는 학력(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Eurofound, 2012; Genda, 2007; Kelly & McGuinness, 2013, Shinozaki, 2012; Styczynska, 2013), 학업성취도(Bynner & Parsons, 2002; Noh & Lee, 2017; 채창균 외, 2008), 훈련프로그램 참여여부(Styczynska,



2013), 학교중퇴여부(Shinozaki, 2012; Tamsberger et al., 2014), 일 경험(채창균 외, 2008; Genda, 2007) 등이 있다.

학력의 경우 국외와 국내의 결과가 뚜렷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NEET 가능성 또는 비구직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지만(Eurofound, 2012; Genda, 2007; Kelly & Mcguinness, 2013, Shinozaki, 2012; Styczynska, 2013). 국내에서는 고학력일수록 NEET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나승호 외(2013)는 대졸이상 졸업자에 비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인 경우 NEET 이행확률이 각각 6.2%, 4.7%, 2.0% 더 낮다고 하였다. 채창균 외(2008)는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NEET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의 NEET 증가가 고학력층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설명된다(나승호 외, 2013).

그러나 학력이라는 변수는 그 자체로 NEET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례로 대학교를 재학 중이라면 NEET가 아닌 것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업성적을 NEET 개인의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창균 외(2008)는 중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NEET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Noh & Lee(2017)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변수를 다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프로그램 참여여부 역시 NEET 청년의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된 바 있다. 훈련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가 비경활 NEET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tyczynska, 2013). 학교중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며(Shinozaki, 2012), NEET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msberger et al., 2014). 마지막으로 일 경험은 NEET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채창균 외, 2008; Genda, 2007)

셋째, 기존 NEET 연구에서 활용된 심리적 요인 변수로는 진로계획 또

는 직업열망수준(Noh & Lee, 2017; Yates et al., 2011)이 대표적이다. 먼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청년기에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Noh & Lee, 2017). Yates 외(2011)는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진로에 대한 낮은 열망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열망수준이 낮을수록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개발된 NHR(NEET-Hikikomori Risk Factors) 척도는 사회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높은 심리적 기질(psychological tendencies)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3가지 요소를 측정한다. 척도는 1)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경향(Freeter lifestyle preference), 2) 자기 유능감의 부족(lack of self-competence), 3)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열망(unclear ambitions for the future)과 같은 심리적 경향성을 측정한다(Uchida & Norasakkunkit, 2015). 실증연구 결과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사회적 배제 즉, NEET가 될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 2) 선행연구 결과

개인 특성요인 역시 NEET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최근 일할 의욕이 없는 청년의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개인의 심리적 기질 또한 NEET 위험에 주요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국내 연구는 없다. 히키코모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의 문제가 부상한 일본의 경우, 임상척도를 개발하여 NEET 청년의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심리적 요인을 진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적 특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요인 중 성별과 연령을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적을 교육 및 인적자본 관련요인으로, 미래계획, 자아개념을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NEET와 관련된 교육 및 인적자본 관련 요인으로 고등학교 성적에 주목한 이유는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는 개인의 학업태도나 인지적 능력 등을 반영하고 있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 3. NEET 기간에 미치는 영향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NEET 가능성 즉, 위협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NEET 기간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NEET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NEET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를 벗어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재량(2006)은 NEET가 다시 취업상태로 전환해서 NEET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결과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패널로 구축하여, 패널 자료에 존재하는 58.4만명의 NEET 중 30%인 17.5만명은 1년 뒤에도 계속 NEET 상태를 지속하며 66%는 NEET 상태를 탈출한다고 하였다(남재량, 2006). 청년기는 지위의 변화가 빈번한 시기이기 때문에 NEET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게 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한 번 NEET를 경험한 집단은 더 오랜 기간 NEET를 경험한 집단보다는 저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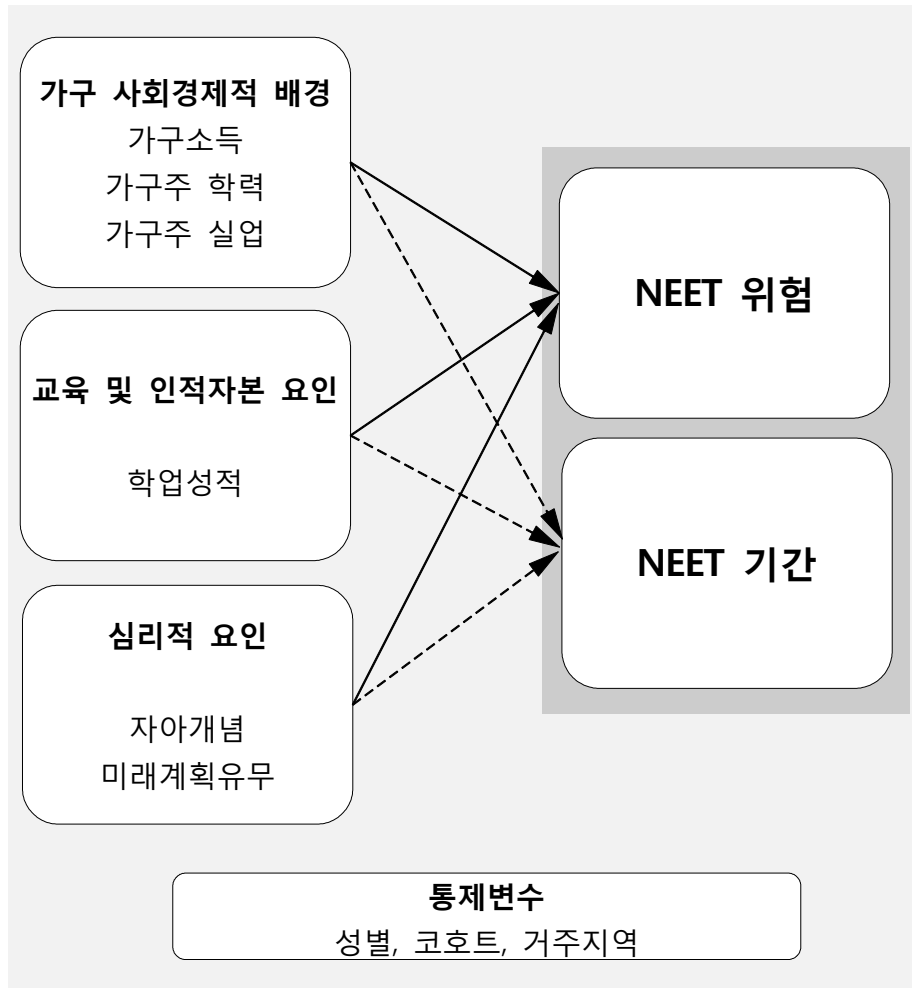
한편, 채창균 외(2008)는 남재량(2006)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NEET 기간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했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채창균 외(2008)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3/4는 1년 후 NEET의 상태를 벗어난다고 하였고, 1/4만 NEET의 상태에 남아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5년 중 2년 NEET 경험 비율은 21.7%, 5년 중 3년은 9.8%, 5년 중 4년은 4.1%, 5년 계속은 2.8%로 나타났다. 즉, NEET의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때, NEET를 5년 중 1년과 2년 경험한 집단 간에는 NEET 재진입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5년 중 3년 이상 경험자는 이들 두 집단에 비해 NEET 재진입 가능성이 5배 정도 높았다. 즉, NEET를 1, 2년이 아닌 그 이상 경험한 집단일 경우 NEET 상태로 고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고려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NEET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시장에서 낙인(stigmatizing)의 위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

터 배제를 야기하며, 이와 맞물려 결혼과 출산이라는 주요 생애사건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을 높인다. 즉, NEET 상태의 지속은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에서 25세 사이 NEET 기간을 측정하여 분석에서 주요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제 1 절 연구모형



<그림2> 연구모형

## 제 2 절 연구가설

### 연구문제1. 청년기 NEET 위험확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가설1-1. 청년기 NEET 위험확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것이다.

연구가설1-2. 가구특성별 연령에 따른 청년기 NEET 위험확률이 다를 것이다.

### 연구문제2.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1. 청소년기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2-1-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NEET 위험확률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2-1-2. 가구주학력이 높을수록 NEET 위험확률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2-1-3. 가구주가 실업이 아니면 NEET 위험확률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2-2. 청소년기 개인특성이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2-2-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NEET 위험확률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2-2-2.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NEET 위험확률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2-2-3. 미래계획을 가지면 NEET 위험확률이 낮을 것이다.

### 연구문제3. 청년기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1. 청소년기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기 NEET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3-1-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NEET 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가설3-1-2. 가구주학력이 높을수록 NEET 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가설3-1-3. 가구주가 실업을 하지 않으면 NEET 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문제3-2. 청소년기 개인특성이 청년기 NEET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3-2-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NEET 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가설3-2-2.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NEET 기간이 짧을 것이다.

연구가설3-2-3. 미래계획을 가지면 NEET 기간이 짧을 것이다.

## 제 4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조사의 1~11차 연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EEP은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교육 정책, 노동시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KEEP은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2,000명 총 6,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추적조사 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도부터 학생 · 가구 · 교사 · 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교 졸업 이후에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대표성을 갖도록 층화집락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 되었다.

본 연구에서 KEEP 자료를 채택한 이유는 첫째, 객관적인 청소년기 가구환경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가구 환경의 영향을 주요하게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KEEP은 가구설문을 별도로 진행하여 가구주가 직접 응답한 소득, 학력, 고용형태 등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변수가 활용가능하다. 둘째, 자아개념(self-concept)과 미래계획유무와 같은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NEET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데 핵심문항인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청소년기 심리적 속성을 조사한 현존하는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NEET와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의 인적자본과 가구특성에 치우쳐 연구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도 본 조사의 활용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KEEP의 1~11차 년도 자료를 결합(pooled)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구조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청소년기 NEET 상태 간의 인과관계이다. 그리하여 만18~25세 사이의 자료를 결합하였고, 중3코호트는 4~11차, 고3코호트는 1~8차 자료로 이루어졌다. 결합방식은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KEEP 자료

(연령: 만 나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3 코호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고3 코호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가구특성 개인특성	NEET 진입 관찰기간 (7년)							

<표 2>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KEEP 자료의 활용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18세 시점에 가구특성과 개인특성 변수를 활용한다. 만 18세 시점에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 각각 4차와 1차를 결합한 결과, 최종 7,196<sup>4)</sup>

4) KEEP은 2007년(4차)에 중3코호트 신규패널을 1,500명 추가 모집한 바 있다. 조사 시작 당시(2004년), 중3코호트 2,000명, 고3코호트(일반계 및 전문계) 4,000명 총 6,000명이 조사되었으며, 2007년에 추가로 모집된 1,500명까지 하여 총 7,500명이 본 조사의 대상이다. 7,500명 중 중3코호트 304명은 1, 2, 3차 조사 중 이탈하여 7,196명의 정보가 만18세 사례가 만18세 시점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산정에는 2010년에 모집된 비교코호트(보정패널) 757명은 고려하지 않았다.



명이 표집 되었다.

[연구문제2]에서는 청소년기(만18세) 개인 및 가구특성이 청년기(만19세~25세)에 NEET로 진입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사건사 분석은 사건(event)이 발생했는지 관찰하는 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만19세부터 만25세를 사건(event)관찰기간으로 보아, 관측 시작시점인 만19세에 조사에 응한 6,109명을 추출하였다. 이 중 18세 가구주 설문이 결합 가능하며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이 존재하는 4,50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연구문제3]에서는 청소년기(만18세) 개인 및 가구특성이 청년기(만19~25세)에 NEET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여기서 NEET 기간이란 NEET를 경험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7년 동안 NEET 진입 여부가 확인되는 2,591명을 분석대상으로 보았다.

##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종속변수: NEET 위험확률 및 기간

#### 1) NEET 위험확률

NEET 위험확률은 NEET로 진입하면 1, NEET로 진입하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NEET를 일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현재 구직중이지도 않고, 구직할 의사가 없는 자로 매우 좁게 정의한다. 이는 Genda(2007)가 말한 Type3 NEET와 Eurfound(2012)의 구직불참자(the disengaged)와 유사한 정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의사가 없는 NEET를 측정하기 위해 3가지 문항을 활용한다. 먼저 현재 재학 중인지를 확인한다. 그 후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 여부<sup>5)</sup>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묻는 문항을 활용한다. 즉, 재학 중이지 않으면서,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구직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 NEET라고 보는 것이다. 비구직활동 사유에 대한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개월 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질문에 14가지 범주로 응답하게 하였다. ① 재학 중이어서, ②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③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④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⑤ 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⑥ 취업이 확정되어 발령 대기 상태여서, ⑦ 군입대 예정이어서, ⑧ 결혼·육아나 가

---

5) ILO 기준에 의하면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취업으로 분류되며, 미취업자 중 1주일 내 일자리를 구해본 자는 실업자, 그렇지 않은 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지난 1개월을 기준으로만 묻고 있어 ILO의 실업과 비경제활동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NEET를 정의하였다. 남재량(2006)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지난 1개월을 기준으로 NEET를 측정하고 있다. 한편, 4, 5차 년도에는 지난 1개월이 아닌 지난 1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어 그 문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사로 인하여, ⑨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⑩ 취업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⑪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⑫ 건강상의 이유로, ⑬ 군복무 중이어서, ⑭ 기타. 본 연구에서는 즉, 9, 10, 11, 14번에 해당하면 NEET로 보았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아래의 <표3>으로 정리하였다.

<표3> 본 연구의 NEET 정의

관찰 기간	일할 의사가 있음		일할 의사가 없음
	구직 NEET	비구직 NEET	구직단념 NEET
19~25세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 중</li> <li>· 취업확정(발령대기)</li> <li>· 군복무중 (예정)</li> <li>· 결혼·육아나 가사</li> <li>· 건강상의 이유</li> <li>· 진학, 시험, 사업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li> <li>· 취업 안 해도 경제적 부담 없음</li> <li>· 일을 하고 싶지 않음</li> <li>· 기타</li> </ul>

## 2) NEET기간

본 연구에서는 관찰기간 동안 NEET 경험기간을 측정하며, 만 19세~25사이 NEET에 진입하지 않았으면 0, 1년 경험했으면 1, 2년 이상 경험했으면 2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요 문항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측정값 1을 1년 NEET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본 분석의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독립변수

### 1) 청소년기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본 연구에서 만 18세 시점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소득, 가구주의 학력, 가구주의 실업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첫째, 가구소득은 지난 1개월 간 월평균 소득(단위: 백만 원)에 부모가 직접 응답하게 하여 측정했다. 그리고 이를 로그 가구소득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둘째, 가구주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가구주 실업여부는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가구주가 무직이면 실업, 그 외 고용상태에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실업이면 1, 실업이 아닌 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이때 가구주는 남성보호자를 기준으로 보되, 남성보호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여성보호자를 가구주로 보았다.

### 2) 청소년기 개인 특성

본 연구에서 만 18세 시점 청소년의 개인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적등급, 자아개념, 미래계획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첫째, 고교학업성적은 고2 2학기 성적을 1~9등급으로 응답하게 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1등급은 상위 4% 이하, 2등급은 4% 초과~ 11%이하, 3등급은 11%초과~ 23%이하, 4등급은 23%초과~ 40%이하, 5등급은 40%초과~ 60%이하, 6등급은 60%초과~ 77%이하, 7등급은 77%초과~ 89%이하, 8등급은 89%초과~ 96%이하, 9등급은 96%초과를 의미한다. 성적등급은 1~9로 역코딩하여 연속변수로 활용한다. 즉, 9점으로 갈수록 성적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래계획여부는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로 응답한 것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자아개념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

참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한 것의 평균점수를 내어 활용한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진입연령, 성별, 코호트, 거주지역은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진입연령은 NEET로 진입한 연령을 의미하며, 더미변수화 하여 만19세, 만20세, 만21세, 만22세, 만23세, 만24세, 만25세 연령 더미를 투입한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측정했으며,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다. 코호트는 중3코호트를 0, 고3코호트를 1로 코딩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규모 역시 NEET에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됐다(나승호 외, 2013;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거주지역은 수도권인 경우 1, 비수도권은 0으로 코딩하였다.

〈표4〉 변수목록

구분		변수 설명 및 측정 방법	변수 유형	
중속 변수	NEET위험확률	만19세~ 25세 동안 NEET 진입 여부 0= 미진입, 1= 진입	더미	
	NEET기간	만19세~ 25세 동안 NEET에 해당했던 기간 0= 없음, 1= 1년, 2= 2년 이상	서열	
독립 변수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 <sup>6)</sup>	로그 가구소득	(가구주응답) 지난 1개월 간 월평균 로그 가구소득	연속
		가구주 학력	(가구주응답)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1-5점)	연속
		가구주 실업여부	(가구주응답) 실업여부 무직에 해당= 1, 그 외= 0	더미
	개인특성	성적등급	만 18세 고교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응답 1등급= 9, 2등급= 8, 3등급= 7, 4등급= 6, 5등급= 5, 6등급= 4, 7등급= 3, 8등급= 2, 9등급= 1	연속
		미래 계획 여부	만 18세에 미래 직업을 결정했는지 여부 직업 결정= 1, 직업 미결정=0	더미
		자아 개념	만18세 자신에 대한 응답 합산점수의 평균 ①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②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③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④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⑤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⑥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5점)	연속
통제 변수	개인특성	NEET 진입연령	NEET 진입연령(NEET위험기간) 만19세(1년), 만20세(2년), 만21세(3년), 만22세(4년), 만23세(5년), 만24세(6년), 만25세(7년)	더미
		성별	남성= 0, 여성= 1	
		연령	중3코호트= 0, 고3코호트 =1	
	지역특성	거주 지역	만 18세 거주지역 수도권= 1, 비수도권= 0	

6) 가구주 학력과 실업여부를 측정할 때, 가구주는 남성보호자를 기준으로 한다. 남성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여성보호자의 학력과 실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 제 3 절 분석방법

### 1. 사건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적용하여 NEET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을 예측하고, 그러한 시점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청소년기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건사 분석은 계량경제학에서는 지속기간 분석(duration analysis)이라 하며, 생물통계학에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생존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사건의 발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건사 분석이라고도 불린다. 사건사 분석은 어떤 사건(event)의 발생여부와 사건발생의 시점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적용하는 통계방법이다. 여기서 사건은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qualitative change)를 의미한다(이재열 외, 2005). 이러한 변화의 예로 실업, 빈곤진입 또는 탈출, 결혼, 사망 등이 있다.

사건사 분석이 독립변수와 사건시점 사이의 상관분석 혹은 다중회귀분석에 비교하여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위험도를 추정하며 독립변수의 각 연도에서의 위험도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료수집이 종료된 시점까지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즉 우측 절단된(right-censored) 사례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고 단지 발생여부만을 고려하는데 반해, 사건사 분석은 21세에 NEET로 진입과, 24세에 NEET로 진입을 구분할 수 있다. 넷째, 동일하지 않은 관찰 기간을 가진 개인을 포함하는 분석이 가능하며, 시간 의존적 변수(time-dependent covariates)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ime-varying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건사 분석은 사건(NEET

진입)까지의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에 비해 NEET 진입을 설명하는 모형을 잘못 추정할 가능성이 낮다.

#### 1) 생명표분석

생명표 분석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의 일종이며, 생존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은 비모수적 모형이다. NEET로부터 생존할, 즉 NEET로 진입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 생명표분석(life table analysis)<sup>7)</sup>를 이용한다. 생명표분석은 사건(event)이 발생한 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단절(censored)된 사례가 각 구간의 중간시점에서 단절된 것으로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NEET 연구에 적용해 본다면 각 관찰기간 구간 별로 NEET가 아닌 상태로 남아있는 비율 즉, 누적생존확률의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 2) 비연속시간 사건사 분석

NEET 진입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Singer와 Willett(1993)이 제시한 비연속 시간 사건사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NEET 여부는 1년 단위로 측정된 이산 시간(discrete-time) 자료이기 때문이다. 비연속 시간 사건사 분석은 로지스틱 모형에 시간의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로지스틱 모형은 NEET 진입연령에 따라서 NEET 위험확률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비연속시간 사건사 분석에서는 전체 관찰기간 중 특정기간(time period)  $j$ 에서 개인  $i$ 에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위험  $h(t_{ij})$ , hazard로 정의하고 이 위험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즉,  $h(t_{ij})$ 는 기간  $j$ 이전에 개인  $i$ 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그 개인이 기간  $j$ 동안 사건을 경험할 조건

---

7) 생존확률(위험확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Kaplan-Meier의 방법과 생명표분석(life table analysis)이 있다. Kaplan-Meier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5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간 별 생존율을 추정할 수는 없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의 생존율을 구하고 이들의 누적으로 누적 생존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만21~25세 사이의 관찰기간 중 특정시점(time period)인 만23세에 특정 개인이 NEET로 진입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이 24세에 NEET로 진입하게 될 조건 확률인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식1>와 같다.

$$h(t_{ij}) = \Pr[T_i = j | T_i \geq j]$$

<수식1>

위 식에서  $T_i$ 는 개인  $i$ 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기간을 나타내고 Pr은 확률을 나타낸다. 확률과 독립변수의 관계는 비선형(흔히 S자 로지스틱 함수로 표현)이므로 비연속시간 사건사 분석에서도 위험확률을 로짓 변환<sup>8)</sup>하여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선형(linear)으로 표현한다(홍세희, 2005). 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수식2>와 같다.

$$\ln[h_{ij}] = \ln\left[\frac{h_{ij}}{1-h_{ij}}\right] = \alpha_t + \beta\chi(\text{time}_{ij})$$

<수식2>

<수식2>에서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X(\text{time}_{ij})$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고정된 값을 가질 수 있다.  $\alpha_t$ 는 시간의 함수로, 위험함수 기초선(baseline hazard function)의 로짓이라고도 불린다

---

8) 로짓이란 승산 $\left[\frac{h(t_{ij})}{1-h(t_{ij})}\right]$ 에 자연로그를 취한  $\ln\left[\frac{h(t_{ij})}{1-h(t_{ij})}\right]$ 를 말한다.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수식3>과 같다. 각 개인  $i$ 에 따라 독립변수의 값이 다르므로 매 시점에서 개인에 따라 위험확률이 달라진다.

$$\ln h_{ij} = \alpha_j D_j + [\beta_1 X_1 + \beta_2 X_2]$$

<수식3>

$j$ : 만21~25세 사이의 특정기간  $i$ : 개인  $h_{ij}$ : 특정기간  $j$ 에 개인  $i$ 의 NEET 위험확률  $\alpha$ : 매 기간의 전체집단에 대한 위험확률  $D$ : 기간 더미  $X_1$ : 개인특성변수  $X_2$ : 가구특성변수

## 2.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의 NEET 기간에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한다. 앞선 분석의 모형에는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했는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NEET 기간에 따라 독립변수의 영향이 다르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NEET 기간은 0~2로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종속변수의 범주가 3개 이상이며 순서형 척도일 경우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며,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본 분석의 모형은 <수식4>와 같다.

$$y = \beta_1 X_1 + \beta_2 X_2$$

$$\begin{aligned} y &= 0 \text{ (not)} && \text{if } y \leq \mu_0 \\ &= 1 \text{ (one-year)} && \text{if } \mu_0 \leq y \leq \mu_1 \\ &= 2 \text{ (two-year +)} && \text{if } \mu_1 \leq y \leq \mu_2 \end{aligned}$$

<수식4>

## 제 4 절 자료구성

### 1. 사건사 분석의 자료구성

사건사 분석의 적용을 위해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자료를 구성하였다. 첫째, NEET 관찰기간 동안 사건(event)이 발생하고, 발생까지 절단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완벽한 주기로 보았다.<sup>9)</sup> 둘째, 우측절단(right-censored) 사례는 분석에 포함한다. 생존분석은 우측절단사례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관찰된 시점까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분석방법이기 때문이다(Allison, 2002). 본 자료에 포함되는 우측절단은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먼저, 7년의 관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건(event)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Type1)이다. 이런 유형의 자료 벡터 값은 (0 0 0 0 0 0 0)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관찰기간 중도에 이탈하여 더 이상 관찰이 불가능한 유형이다(Type2)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 벡터 값은 (0 0 99 99 99 99 99)이다. 99는 더 이상 관측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때는 이탈 이전 시점까지를 해당 사례의 주기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한 경우이다(Type3). 이때의 자료 벡터는 (0 0 99 99 0 0 0)이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개의 주기(spell)을 갖게 되나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주기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반복 주기를 갖는 사례 중 군복무로 인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이는 남성표본의 손실로 표본의 대표성 저하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 손실을 막기 위해 입대 및 전역시기가 확인 가능한 사례 중 그 기간 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NEET에 진입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보정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4,506명의 person data를 21,606

9) 본 연구에서는 관찰기간 동안 NEET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첫 번째 주기 즉, 첫 NEET 시점만을 분석에 포함한다. 전체 363명의 NEET 중 반복 주기가 확인되는 사례는 30개이다.

개의 person-year data로 변환하였다. <표5>은 person data set으로 기본적인 data 구성이다. 사건발생여부와 진입연령변수가 활용되며, ID3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진입연령 또한 알 수 없는 우측 절단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표6>은 사건사 분석에 활용되는 person-year data set이다. 19~25는 기간 더미이며, y는 사건 발생여부를 나타낸다. 만 22세에 NEET에 진입한 ID2는 22가 1인 행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본다(y=1). 우측절단사례 ID3과 ID4는 각각 7개와 2개의 행을 갖게 되지만, 마지막 행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y=0).

## 2. 서열 로지스틱 분석의 자료구성

본 연구는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NEET 기간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다. 이 때 기간이란 NEET에 해당했던 기간을 의미한다. 서열 로지스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구성하였다. 먼저 사건사 분석의 연구대상인 4,506명 중 7년 동안 NEET 진입여부가 모두 확인되는 사례를 본 분석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서 표집 된 2,591명도 남성의 군복무 기간이 보정된 표본에 해당한다.

<표5> Person data set

ID	성별	...	Event	진입연령	비고
1	f	...	1	19	event
2	m	...	1	22	event
3	f	...	0	.	Type1
4	m		0	.	Type2/3 (21세 censored)

f: 여성, m: 남성, 1: 사건발생, 0: 해당없음

<표6> Person-year data set

ID	성별	...	19	20	21	22	23	24	25	y
1	f	...	1	0	0	0	0	0	0	1
2	m	...	1	0	0	0	0	0	0	0
2	m	...	0	1	0	0	0	0	0	0
2	m	...	0	0	1	0	0	0	0	0
2	m	...	0	0	0	1	0	0	0	1
3	f	...	1	0	0	0	0	0	0	0
3	f	...	0	1	0	0	0	0	0	0
3	f	...	0	0	1	0	0	0	0	0
3	f	...	0	0	0	1	0	0	0	0
3	f	...	0	0	0	0	1	0	0	0
3	f		0	0	0	0	0	1	0	0
3	f		0	0	0	0	0	0	1	0
4	m		1	0	0	0	0	0	0	0
4	m		0	1	0	0	0	0	0	0

19~25: 기간 더미, y: 1(사건발생) 0(해당없음)

## 제5장 연구결과

###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7>과 같다. 먼저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4,506명 중 남성이 2,273명(50.4%), 여성이 2,233명(49.6%)으로 거의 유사하게 표집 되었다. 코호트는 중3코호트 2,010명(44.6%), 고3코호트 2,496명(55.4%)로 고3코호트의 비중이 전체 표본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만18세 즉, 고3시점에 살펴본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 중 성적 등급은 평균 약 4.48등급이다. 1에서 5점까지로 응답한 자아개념의 평균은 약 3.47점이다. 미래계획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04명(64.4%), 미래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02명(35.6%)로 나타났다.

만18세 당시 가구소득은 평균 약 309만원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287명(6.4%),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58명(45.7%)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인 자는 1,469명(32.6%)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00만 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자는 436명(9.7%), 700만원 이상인자는 256명(5.7%)으로 표집 되었다.

가구주 학력과 가구주 고용형태는 남성보호자를 기준으로 보되, 남성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보호자를 가구주로 보았다. 먼저 가구주 학력은 75.4%(3,398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으며 24.6%(1,108명)만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179명(26.2%), 고등학교 졸업인 자는 2,219명(49.2%),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는 191명(4.2%), 4년제 대학 졸업인 자는 732명(16.2%), 대학원 이상은 185명(4.1%)로 가장 적었다.

가구주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무직인 자는 285명(6.3%)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1,819명(40.4%), 비상용직 임금근로자는 474명(10.5%),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655명(14.5%),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65명(28.1%), 무급가족종사자는 단 8명(0.2%)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 18세 당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한 자는 1,806명(40.1%),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한 자는 2,700명(59.9%)로 표집 되었다.

〈표7〉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개인 특성	성별	남성	2,273	50.4
		여성	2,233	49.6
	코호트	중3 코호트	2,010	44.6
		고3 코호트(전문계고)	1,248	27.7
		고3 코호트(일반계고)	1,248	27.7
	성적 등급	평균(se)	4.4874 (1.7430)	
	자아개념	평균(se)	3.4704 (0.5822)	
미래계획 유무	있음	2,904	64.4	
	없음	1,602	35.6	
가구 특성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87	6.4
		100만원 ~ 300만원	2,058	45.7
		300만원 ~ 500만원	1,469	32.6
		500만원 ~ 700만원	436	9.7
		700만원 이상	256	5.7
		평균(se)	309.4048 (222.7677)	
	가구주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179	26.2
		고등학교 졸업	2,219	49.2
		2-3년제 대학 졸업	191	4.2
		4년제 대학 졸업	732	16.2
		대학원 이상	185	4.1
	가구주 고용형태	무직	285	6.3
		상용직 임금근로자	1,819	40.4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474	10.5
		종업원을 둔 고용주	655	14.5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265	28.1
		무급가족종사자	8	0.2
	거주지역	수도권	1,806	40.1
		비수도권	2,700	59.9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8> 연속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ln가구소득	4,506	5.5337	0.6487	2.71	8.52	-0.318	0.600
가구주 학력	4,506	2.2288	1.1275	1.00	5.00	0.911	-0.131
성적등급	4,506	4.4874	1.7430	1.00	9.00	0.242	-0.303
자아개념	4,506	3.4704	0.5822	1.00	5.00	-0.097	0.546

본 연구의 모형에 연속변수로 사용되는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성적등급,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일반적으로 왜도 3.0, 첨도 10을 기준으로 두 값보다 크면 정상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Kline, 2005). 먼저 가구소득은 평균 5.5337 (표준편차 0.6487)로 최솟값과 최댓값의 중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0.318, 0.600로 정규성을 충족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은 5점 척도이며 평균 2.2288 (표준편차 1.1275)로 2-3년제 대학 졸업에 해당하는 중점보다 낮았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0.911과 -0.131로 정상분포의 기준에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성적등급은 1에서 9등급으로 측정됐으며 평균 4.4874 (표준편차 1.743)로 중점보다 약간 높았다. 왜도와 첨도는 0.242, -0.303로 정규성 기준을 충족했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은 5점 척도이며 평균 3.4704 (표준편차 0.5822)로 높게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0.097, 0.546로 정규분포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이 넘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VIF 값이 1.022~1.489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검증에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표9>와 같다.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값이 절대값 0.8보다 큰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상관계수는 0.030~0.478의 범위 안에 있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였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로그 가구소득과 가구주 학력이다( $r=.478$ ). 이는 가구주 학력이 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미루어보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채창균 외, 2008).

종속변수인 NEET 진입과 독립변수 간의 관계 중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는 성별, 로그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실업여부, 성적등급, 자아개념이 있다. 로그 가구소득은 NEET 진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r=-.102$   $p<.01$ ), 가구주 학력 역시 NEET 진입과 부적 관계에 있다( $r=-.059$   $p<.01$ ). 가구주가 실업과 NEET 진입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040$   $p<.01$ ) 성적등급(역코딩)은 1~9등급을 9~1점으로 역코딩 하였으며, 9점으로 갈수록 성적이 높게 측정되었다. 성적은 NEET 진입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게 나타났다( $r=-.095$   $p<.01$ ). 자아개념도 NEET 진입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062$   $p<.01$ ).

〈표9〉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성별	로그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실업 여부	성적	자아 개념	미래 계획 여부	NEET 여부
성별	1							
로그 가구소득	-.025	1						
가구주 학력	-.040**	.478**	1					
가구주 실업여부	.005	-.352**	-.104**	1				
성적	.030*	.097**	.122**	-.014	1			
자아개념	-.051**	.147**	.170**	-.049**	.101**	1		
미래계획 여부	.112**	.031*	.017	-.036*	.043**	.269**	1	
NEET여부	.069**	-.102**	-.059**	.040**	-.095**	-.062**	-.024	1

\* p<.05 \*\* p<.01 \*\*\* p<.001

## 제2절 NEET 진입 대상의 특성

본 절에서는 기초통계를 통해 만19~25세 사이에 NEET로 진입한 대상의 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NEET 진입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연령별 NEET 사례수와 반복 NEET 경험비율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10〉 NEET 사례 수

여부	빈도(명)	비율(%)
진입	363	8.1
해당없음	4,143	91.9
총합	4,506	100.0

〈표10〉에서 보듯이, 만19~25세 사이에 NEET로 진입한 대상은 4,506명 중 363명(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이 아니며, 일하고 있지 않으며, 구직활동 중이지 않은 대상 중에서도 구직의욕이 없는 자만을 NEET로 보았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엄격한 기준으로 NEET를 가장 좁게 정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표본 중 8.1%가 만19~25세 사이에 NEET를 경험했다. 이는 성인이행기에 약 8%는 한 번 이상 학업 및 구직 의욕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11> NEET 진입연령에 따른 NEET 경험기간

구분 기간	사례수 (비율)	진입연령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1년	333 (91.7)	29	38	31	39	49	75	72
2년 이상	30 (8.3)	2	4	6	4	8	6	·
총합	363 (100.0)	31 (8.5)	42 (11.6)	37 (10.2)	43 (11.8)	57 (15.7)	81 (22.3)	72 (19.8)

<표11>은 363명이 언제 NEET로 진입했는지를 제시해준다. 만24세에 NEET로 진입하는 사례는 81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만25세에 NEET로 진입하는 사례가 72명(19.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NEET 진입 사례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NEET 363명 중 30명(8.3%)만이 반복 NEET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로 진입한 대상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표12>에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141명(38.8%), 여성은 222명(61.2%)으로 향후 본 분석에서도 여성의 NEET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다. 중3코호트는 154명(42.4%), 고3코호트는 209명(57.6%)이며, 고3코호트 중 전문계고 144명, 일반계고 65명이 NEET로 진입했다.

다음으로 만 18세(고3) 당시 개인특성을 살펴본다. NEET의 성적 등급의 평균은 약 5.04등급 (표준편차 1.7186)으로 전체 표본의 4.48등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자아개념의 평균은 3.35점 (표준편차 0.6228)으로 전체 표본의 3.47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미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220명(60.6%),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143명(39.4%)으로, 전체 표본보다 미래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더 많지만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전체 표본

64.4%: 35.6%).

만18세 당시 NEET 가구의 특성은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고용 형태로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소득의 평균은 257만원(표준편차 227.0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의 가구소득 평균보다 약 52만원이 낮은 액수이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29명)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표본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15.4%)의 절반으로 NEET가 고소득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주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83.2%(302명)로, 전체 표본의 75.2%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구주 고용형태는 전체 표본에 비하여 무직(9.6%), 비상용직 임금근로자(13.5%),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32.2%)의 비중은 더 높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34.2%), 종업원을 둔 고용주(10.5%)의 비중은 더 낮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NEET의 성장기 거주 지역은 전체표본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12〉 NEET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개인 특성	성별	남성	141	38.8
		여성	222	61.2
	코호트	중3 코호트	154	42.4
		고3 코호트(전문계고)	144	39.7
		고3 코호트(일반계고)	65	17.9
	성적등급	평균(se)	5.0441(1.7186)	
	자아개념	평균(se)	3.3489(0.6228)	
	미래계획 유무	있음	220	60.6
없음		143	39.4	
가구 특성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8	10.5
		100만원 ~ 300만원	194	53.4
		300만원 ~ 500만원	102	28.1
		500만원 ~ 700만원	17	4.7
		700만원 이상	12	3.3
		평균(se)	257.47(227.04)	
	가구주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16	32.0
		고등학교 졸업	186	51.2
		2-3년제 대학 졸업	13	3.6
		4년제 대학 졸업	40	11.0
		대학원 이상	8	2.2
		평균(se)	2.0028(0.9986)	
	가구주 고용형태	무직	35	9.6
		상용직 임금근로자	124	34.2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49	13.5
		종업원을 둔 고용주	38	10.5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17	32.2
	거주지역	수도권	153	42.1
비수도권		210	57.9	

### 제3절 NEET 위험과 생명표 분석

본 절에서는 생명표 분석(life-table analysis)을 통해 각 연령별 위험확률을 추정하여 NEET 위험확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 언제인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생명표 분석(life-table analysis)은 NEET 위험확률이 가장 높은 기간뿐만 아니라 시간적 확률 변화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이어 생명표 분석의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Wilcoxon test를 통해 가구 특성(가구소득, 가구주학력, 가구주고용형태)별로 연령에 따른 생존(위험)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볼 것이다.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s)란 특정 기간에 NEET를 경험하지 않을, 즉 NEET 사건으로부터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 1. 연령별 NEET 생존 및 위험확률

〈표13〉 NEET 생존 및 위험확률

관찰 기간	연령 (세)	분석대상(명)	중도절단 (censored)	NEET진입 (Event)	누적 생존율	NEET 위험확률
1	19	4506	820	31	.99	.01
2	20	3655	428	42	.98	.01
3	21	3185	285	37	.97	.01
4	22	2863	181	43	.95	.02
5	23	2639	124	57	.93	.02
6	24	2458	77	81	.90	.03
7	25	2300	2228	72	-	-

〈표13〉은 최장 관찰기간이 7년인 연구대상의 NEET 위험기간에 대한 누적 생존율과 NEET 위험확률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분석대상은 NEET가 될 위험이 있는 잠재집단을 의미하며, 중도절단은 더 이상 자료가 관측되지 않는 사례를(우측절단), NEET 진입은 그 해에 NEET로 진입한 사례수를 말한다. 1년에는 31명이, 2년에는 그보다 약간 줄어든 42명, 3년에는 37명, 4년에는 43명, 5년에는 57명, 6년에는 81명, 7년에는 72명이 NEET로 진입했다. 누적생존율은 분석대상이 관찰종료까지의 기간 동안 NEET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만24세 시점에 NEET로 진입하지 않고 생존해 있을 확률은 90%에 해당한다. NEET 위험확률(hazard rate),  $h(t)$ 는  $t-1$ 년까지 NEET가 아닌 상태를 지속한 사람이  $t$ 년 안에 NEET로 진입할 확률을 말한다. NEET 위험확률은 만24에 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NEET 위험확률은 해마다 약 1~3%의 위험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년기 NEET 위험(생존)확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연구가설1-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2. 가구 특성별 누적생존확률 추이

가구 특성에 따라 관찰기간별 생존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구소득의 생존함수는 아래와 같다. 이를 위해 가구 특성 중에서도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림3>은 연구대상자의 누적생존율 추이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p < 0.001$ ). 먼저, 범례를 설명하면 범례1은 100만 원 미만, 범례2는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범례3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범례4는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하, 범례5는 700만 원 이상을 의미한다. 편의상 소득1~5의 약칭을 사용한다.

전반적으로 소득1의 누적생존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득2의 누적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3~5는 관찰기간 구간에 따라 누적생존율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최종 관찰구간에서 소득1<소득2<소득3<소득4<소득5 순으로 누적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NEET 상태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함수는 위험이 높으면 급격히 감소하고, 위험이 낮으면 완만하게 감소한다. 소득 1~5 모두 관찰기간6에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이 시점에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림4>는 연구대상자의 누적생존율 추이가 가구주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p < 0.001$ ). 먼저, 범례를 설명하면 범례1은 중졸 이하, 범례2는 고졸이하, 범례3은 2년제 대학졸업, 범례4는 4년제 대학졸업, 범례5는 대학원 이상을 나타낸다. 편의상 학력1~5 약칭을 사용한다.

전반적으로 학력1과 2의 누적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범례는 관찰기간 구간에 따라 누적생존율 순위가 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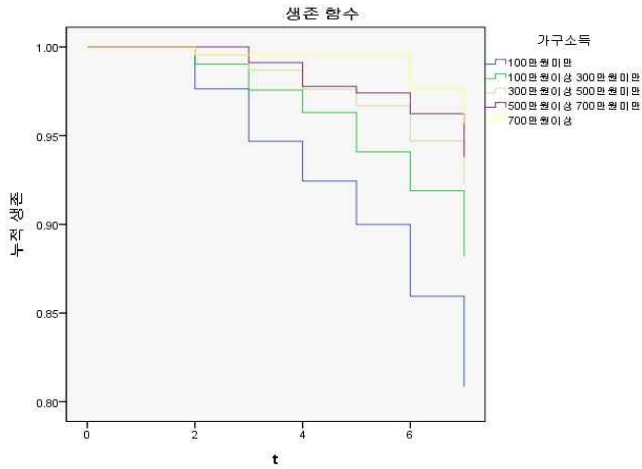
10)  $\pi_1 = .06, \pi_2 = .04, \pi_3 = .03, \pi_4 = .03, \pi_5 = .02$ . 여기서 언급한 확률이란 각 집단(속한 범례)내에서의 연령별 비율을 추정한 것이므로, 일례로  $\pi_1 = .06$ 와  $\pi_2 = .04$  확률수치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라지고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학력1<학력2<학력4<학력5<학력3 순서로 NEET로 진입하지 않을, 즉 생존할 확률이 높았다. 가구주 학력이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학력 3,4,5)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누적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에서는 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5>는 연구대상자의 누적생존율 추이가 가구주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p < 0.001$ ). 먼저, 범례를 설명하면 범례1은 무직, 범례2는 상용직임금근로자, 범례3은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범례4는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범례5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지칭한다. NEET 중 가구주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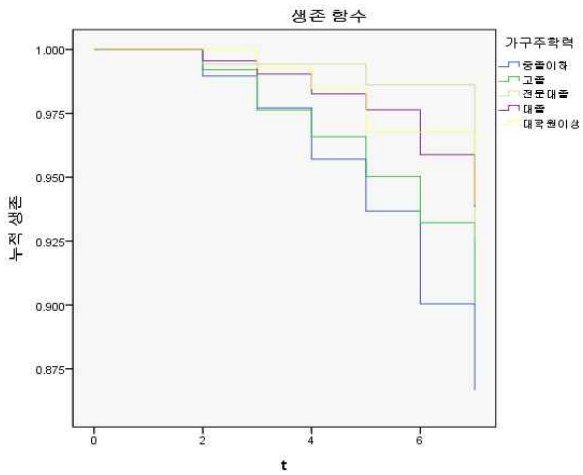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누적생존율이 낮게 나타났고, 가구주가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인 경우와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누적생존율이 모든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고용형태(무직,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비하여 가구주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용주,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누적 생존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최종 구간에서는 무직<비상용직 임금근로자<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상용직 임금근로자<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순서로 누적 생존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존함수는 위험이 높으면 급격히 감소하고, 위험이 낮으면 완만하게 감소한다. 모든 범례가 관찰기간6에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가구주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이 시점에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pi_1 = .04, \pi_2 = .03, \pi_3 = .05, \pi_4 = .03, \pi_5 = .04$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NEET 가구 특성에 따라 NEET 생존확률이 달라진다는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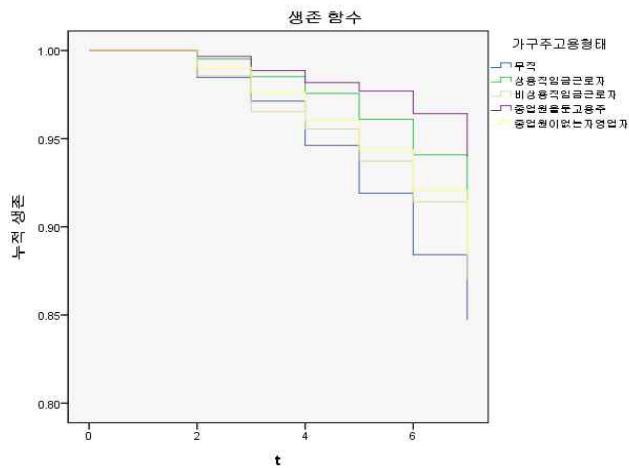
<그림3>  
 가구소득에 따른  
 NEET 생존함수

Wilcoxon statistic= 43.88  
 df= 4 p<0.001



<그림4> 가구주학력에  
 따른 NEET 생존함수

Wilcoxon statistic= 21.44  
 df= 4 p<0.001



<그림5> 가구주고용형태  
 에 따른 NEET 생존함수

Wilcoxon statistic= 25.29  
 df= 4 p<0.001

## 제4절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선 절에서는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 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가구주 고용형태가 불안정할 경우, NEET 위험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산시간 사건사 모형을 통해 위의 가구 특성이 NEET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구특성(가구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이 NEET 위험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연구문제2-1). 다음으로 개인특성 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가구특성 변수의 방향과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연구문제2-2).

본 모형에서는 person data 사례수인 4,506명을 person-year data로 전환하여 21,606개의 person-year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14>에는 NEET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1-1에는 가구특성으로 가구소득, 가구주학력, 가구주실업여부 변수와 통제변수로 NEET 진입연령더미, 성별, 연령코호트, 거주지역을 투입하였다. 모형1-2에는 성적, 자아개념, 미래계획여부를 함께 투입하였다. 두 가지 모형에서 모두 model Chi-square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NEET 위험		Model 1					
		Model 1-1			Model 1-2		
		B	S.E	Exp(B)	B	S.E	Exp(B)
개인특성	성적				-0.2449***	0.0313	0.7828
	자아개념				-0.1359	0.0967	0.8729
	미래계획유무				-0.1174	0.1166	0.8892
가구특성	로그 가구소득	-0.6112***	0.1003	0.5427	-0.5947***	0.1008	0.5517
	가구주학력	-0.0580	0.0589	0.9437	-0.0321	0.0591	0.9684
	가구주실업 (기준: 비실업)	-0.0553	0.2003	0.9462	-0.0610	0.2010	0.9408
진입연령	(기준: 19세) 20세	0.5146*	0.2382	1.6730	0.5418*	0.2386	1.7192
	21세	0.5354*	0.2450	1.7081	0.5738*	0.2454	1.7750
	22세	0.8089***	0.2372	2.2453	0.809***	0.2378	2.3652
	23세	1.1932***	0.2250	3.2977	1.2539***	0.2256	3.5039
	24세	1.6426***	0.2134	5.1685	1.7134***	0.2141	5.5476
	25세	1.6032***	0.2171	4.9646	1.6782***	0.2179	5.3561
통제변수	성별 (기준: 남성)	0.3824***	0.1095	1.4658	0.4331***	0.1111	1.5420
	코호트 (기준: 중3)	0.1131	0.1100	1.1198	-0.0417	0.1129	0.9591
	거주지역 (기준: 비수도권)	0.3046**	0.1103	1.3561	0.3166**	0.1109	1.3724
상수		-1.9501***	0.5434	0.1423	0.2030	0.6683	0.7769
사례수		21,606					
chi2 (df)		186.2657(12)***			254.5492(15)***		

\* p<0.05, \*\* p<0.01, \*\*\* p<0.001

Model 1은 만19~25세에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 한 모형이다. 개인화 이론에 의하면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가구특성 요인이 사라져야 한다. 즉,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Model 1-1에서는 개인특성변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을 투입하고, Model 1-2에서는 개인특성 요인 역시 통제하였다.

Model 1-1을 살펴보면,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로 로그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실업여부 변수를 투입하였다. 먼저,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로그 가구소득이 NEET 위험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6112$ ,  $p<0.001$ ). 즉, 로그 가구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NEET로 진입할 승산(odds)이 0.5427배 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NEET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빈곤문제와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가구주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가구주 학력과 NEET 위험간의 부적 관계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 $B=-0.0580$ ). 가구주 학력에 대해서는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NEET화 경향이 높다고 한 연구(김중성 & 이병훈, 2012; 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와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 실업여부는 NEET 위험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1-2는 완전모형으로 NEET 위험과 관련된 청소년기 특성변수인 성적, 자아개념, 미래계획유무 변수를 투입하였다. 먼저, Model 1-2에서는, Model 1-1과 마찬가지로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로 로그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실업여부 변수를 투입하였다. 개인특성을 통제 하였음에도 여전히 가구특성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로써 본 모형에서는 개인화 이론이 지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NEET 위험의 계층화 가능성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개인특성요인을 살펴보면, 성적은 NEET 위험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0.2449$ ,  $p<0.001$ ). 즉, 고3때 성적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NEET가 될 승산(odds)이 0.7828배 만큼 낮아졌다.

고교시절 성적이 낮은 사람이 NEET가 될 위험이 높은 이유는 가구특성과 연결지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가구특성 변수 중 가구소득과 가구주학력의 계수가 미미하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특성에는 가구특성의 영향이 내재화 되어있을 수 있다. 가구특성(가족배경)은 청소년기 학업성취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구인회, 2003). 즉, 성적이 나쁘면 NEET가 될 위험이 높은 이유가 가족배경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아개념과 학창시절 미래계획을 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NEET 위험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계수의 방향을 살펴보면 NEET 위험과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추측해 볼 수만 있었다( $B_1=-0.1359$ ,  $B_2=-0.1174$ ). 종합하면, 개인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대표하는 성적이 NEET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Model 1-2를 통해 검증되었다.

진입연령은 Model 1-1, Model 1-2 모두 모든 연령에서 만19세에 비해 NEET 위험이 높았다. 계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다가 만24세에 정점을 찍고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관찰기간 후반부로 갈수록 NEET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절되는 한국 현실과 부합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만24세가 NEET 위험확률이 가장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일수록 NEET가 될 승산이 Model 1-1의 경우 1.47배, Model 1-2의 경우 1.54배 높아졌다( $p<0.001$ ).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NEET가 될 위험이 높았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는 가구소득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소득을 범주형 변수로 세분화 했다. 그리하여 고소득 가구에서 NEET화 경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표15>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구소득더미)

종속변수 NEET 위험		Model 2		
		B	S.E	Exp(B)
가구 특성	(기준: 저소득) 중간소득	-0.6810***	0.1474	0.5061
	고소득	-1.2347***	0.2978	0.2909
	가구주 학력	-0.0881	0.0576	0.9157
	가구주 실업 (기준: 비실업)	0.0565	0.1989	1.0581
개인 특성	성적	-0.2437***	0.0313	0.7837
	자아개념	-0.1598	0.0968	0.8523
	미래계획유무	-0.1163	0.1165	0.8902
진입 연령	(기준: 19세) 20세	0.5381*	0.2385	1.7127
	21세	0.5697*	0.2454	1.7677
	22세	0.8577***	0.2377	2.3578
	23세	1.2498***	0.2256	3.4898
	24세	1.7073***	0.2140	5.5142
	25세	1.6726***	0.2178	5.3262
통제 변수	성별 (기준: 남성)	0.4311***	0.1112	1.5390
	코호트 (기준: 중3)	-0.0136	0.1127	0.9865
	거주지역 (기준: 비수도권)	0.2609*	0.1098	1.2981
상수		-2.6767***	0.4187	0.0688
사례수		21,606		
chi2(df)		245.5088 (16)***		

\* p<0.05, \*\* p<0.01, \*\*\* p<0.001

Model 2의 model-Chi square는  $p < 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Model 1-2에서 로그 가구소득을 범주형 변수로 재코딩하여 투입한 모델로, 가구소득 범주를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 하위 10% 이내는 저소득, 가구소득 상위 10% 이내는 고소득으로 본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과연 그러한 지 다시 확인해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가설이 옳다면 고소득 가구에서 NEET화 경향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Model 2에서는 저소득에 비하여 고소득에 속할수록 NEET가 될 승산이 0.2909만큼 감소했다( $p < 0.001$ ). 저소득에 비하여 중간소득 범주에 속할수록 또한 NEET가 될 승산이 0.5061만큼 낮아졌다( $p < 0.001$ ). 빈곤 가구의 청소년이 교육과 취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일할 의욕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고소득 가구에서의 NEET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특성과 진입연령 더미를 살펴보면 앞선 Model 1-2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개인특성 변수 중에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계수의 크기도 유사하였다( $B = -0.2437$ ,  $p < 0.001$ ).

## 제5절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선 모형에서는 NEET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고, 한 번 진입하면 NEET라고 보았다. 그러나 청년기 특히 20대 초반의 생애과정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NEET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NEET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특성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NEET를 경험한 기간에 따라 가구특성이나 개인특성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3을 검증할 것이다.

Model 3에서는 종속변수를 NEET 기간<sup>11)</sup>으로 보았고 0~2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NEET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0, 1년 동안 NEET를 경험하면 1, 2년 이상 NEET를 경험하면 2로 보았다. 0~2까지는 서열변수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다. model Chi-square는 모두  $p < 0.001$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 측정 문항 상의 한계로 인해 지난 1개월간의 동정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기간을 측정하였음을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16> 청년기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NEET기간 (0, 1, 2)		Model 3					
		Model 3-1			Model 3-2		
		B	S.E	Exp(B)	B	S.E	Exp(B)
개인특성	성적				-0.2723***	0.0347	0.7616
	자아개념				-0.1311	0.1062	0.8771
	미래계획유무				-0.1339	0.1277	0.8747
가구특성	로그 가구소득	-0.6438***	0.1108	0.5253	-0.6344***	0.1124	0.5302
	가구주 학력	-0.0706	0.0630	0.9319	-0.0415	0.0604	0.9593
	가구주 실업 (기준: 비실업)	-0.0553	0.2270	0.9462	-0.0686	-0.2309	0.9337
통제변수	성별 (기준: 남성)	0.4824***	0.1177	1.6199	0.5391***	0.1209	1.7145
	코호트 (기준: 중3)	0.1952	0.1186	1.2155	0.0343	0.1230	1.0349
	거주지역 (기준: 비수도권)	0.3494**	0.1199	1.4183	0.3684**	0.1222	1.4455
cut1_cons		-1.3398*	0.5757	-1.3398	-3.2716***	0.6783	-3.2716
cut2_cons		0.8765	0.5883	0.8765	-1.0122	0.6862	-1.0122
사례수		2,591					
chi2(df)		88.6807(6) ***			159.2815(9) ***		

\* p<0.05, \*\* p<0.01, \*\*\* p<0.001

Model 3은 만19~25세에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것이다. 앞선 4절에서는 NEET 위험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가구특성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 절에서는 종속변수가 ‘기간’ 일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Model 3-1에서는 개인특성 변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을 투입하고, Model 3-2에서는 개인특성 요인 역시 통제하였다.

Model 3-1을 살펴보면,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로 로그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실업여부 변수를 투입하였다. 먼저,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로그 가구소득이 NEET 위험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6438, p<0.001$ ). 즉, 로그 가구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NEET로 진입할 승산(odds)이 0.5253배 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즉, NEET가 빈곤문제와 연결돼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주 학력과 가구주 실업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절에서 검증한 NEET 위험확률 모형 결과와 유사하다.

Model 3-2는 완전모형으로 NEET 기간과 관련된 청소년기 특성변수인 성적, 자아개념, 미래계획유무 변수를 투입하였다. 먼저, Model 3-2에서는, Model 3-1과 마찬가지로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로 로그 가구소득, 가구주 학력, 가구주 실업여부 변수를 투입하였다. 개인특성을 통제하였음에도 여전히 가구특성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Model 3-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로그 가구소득 계수의 절댓값은 약 0.01만큼 감소하여 개인특성요인을 투입하여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모형에서는 개인화 이론이 지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NEET 위험의 계층화 가능성이 시사된다.

개인특성 중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때 성적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더 높은 서열의 기간 범주에 속할 승산이 0.7616배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이는 성적이 나쁠수록 반복 NEET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교시절 성적이 낮은 사람이 NEET가 될 위험이 높은 이유는 가구소득과 같은 가구특성의 영향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족배경이 청소년기 학업성적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구인회, 2003).

다음으로 자아개념과 학창시절 미래계획을 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NEET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계수의 방향을 살펴보면 NEET 기간과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추측해 볼 수만 있었다( $B=-0.1311$ ,  $B=-0.1339$ ). 종합하면, 개인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나타내는 성적이 NEET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Model 3-2를 통해 검증되었다.

Model 3-1과 3-2 모두 통제변수 중 성별과 거주지역이 유의한 수준에서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반복 NEET 위험이 높았다. 본 모델에서도 가구소득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로 세분화하여 투입했다. 그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 청년기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구소득더미)

종속변수 NEET기간 (0, 1, 2)		Model 4		
		B	S.E	Exp(B)
가구 특성	(기준: 저소득) 중간소득	-0.7743***	0.1686	0.4610
	고소득	-1.3184***	0.3203	0.2676
	가구주 학력	-0.1001	0.0622	0.9048
	가구주 실업 (기준: 비실업)	0.071	0.2262	1.0736
개인 특성	성적	-0.2696***	0.0347	0.7637
	자아개념	-0.1582	0.1060	0.8536
	미래계획유무	-0.1316	0.1275	0.8767
통제 변수	성별 (기준: 남성)	0.5309***	0.1208	1.7004
	코호트 (기준: 중3)	0.0769	0.1221	1.0800
	거주지역 (기준: 비수도권)	0.3092*	0.1207	1.3623
상수_cut1		-0.7083	0.4263	-0.7083
상수_cut2		1.5488***	0.4427	1.5488
사례수		2,591		
chi2(df)		151.808(10)***		

\* p<0.05, \*\* p<0.01, \*\*\* p<0.001

Model 4의 model-Chi square는  $p < 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는 Model 3-2의 로그 가구소득을 범주형 변수로 변환시켜 투입한 것이다. Model 4에서는 저소득에 비하여 고소득에 속할수록 더 높은 서열의 기간 범주에 속할 즉, 더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할 승산이 0.2676배 낮았다( $p < 0.001$ ). 또한, 저소득에 비하여 중간소득일수록 더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할 승산이 0.461배 낮았다( $p < 0.001$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저소득 가구인 경우 고소득 가구에 비하여 더 오랜 기간 NEET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특성변수를 살펴보면, 성적의 영향 또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2696$ ,  $p < 0.001$ ). 고3때 학업성취도가 좋은 학생일수록 반복적으로 NEET가 될 위험에 덜 노출되는 것이다. 자아개념과 미래계획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6장 결론 및 합의

### 제1절 연구결과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만18세)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이 청년기(만 19~25세) NEET 위험과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구성 시 군복무로 인한 남성표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입대 및 전역시기가 확인되면 NEET에 진입하지 않았던 상태로 간주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 첫째, 청년기 NEET 위험확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둘째, 청년기 NEET 위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셋째, 청년기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전체표본과 NEET로 진입한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주요 변수의 정규성, 상관관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생명표분석(life-table analysis)을 활용하여 NEET 위험확률을 추정하였고, NEET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예측하였다. 그 후 가구특성에 따라 NEET 생존확률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는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discrete-time event history)을 활용하여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청소년기 요인이 NEET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하고 있지 않으며, 구직 중이 아닌 자 중에서도

구직의욕이 없는 NEET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NEET를 매우 좁게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표본 중 약 8.1%(363명)가 만19~25세 사이 NEET를 경험했다. 전체 NEET의 약42%가 만24세와 25세에 NEET로 진입했다. 만 24세에는 81명, 만25세에는 72명으로, 24세에 NEET로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363명 중 8.3%(30명)가 반복 NEET를 경험하였다. 상당수가 NEET를 진입했다가 탈출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의 생애과정이 가변적이라는 현실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NEET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표본에 비하여 고3 성적수준, 가구소득 수준, 가구주학력 수준, 가구주 고용형태의 안정성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생명표 분석결과 NEET 위험확률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NEET 누적생존확률도 달라졌다. 먼저 NEET 위험확률은 만19~21세에는 0.01로 일정하다가 만22~23세에 0.02, 만24세에 0.03으로 가장 위험이 높았고, 이 시점까지 NEET로 진입하지 않고 생존해 있을 확률은 90%에 해당했다. 가구 특성별 시간에 따른 NEET 누적생존률이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누적 생존율이 낮았고, 가구주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대학재학 이상보다 누적생존율이 낮았고, 가구주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면(무직,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안정된 경우(상용직 임금근로자,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보다 누적생존율이 낮았다.

셋째,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통해 NEET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특성만을 투입한 모델에서는 로그 가구소득이 NEET 위험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모두 투입한 완전모형에서는 가구소득과 성적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개인화 이론은 지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NEET 위험의 계층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NEET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만이 아닌 빈곤의 문제와 연결돼있음이 드러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

NEET에 빠지기 쉽다는 인식과 달리, 저소득(하위10%)에 비해 고소득(상위10%)에서 NEET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빈곤과 NEET의 정적관계를 뒷받침 하고 있다. 모든 연령에서 NEET 위험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며 대학 졸업과 같이 또 한 번의 전환(이행)이 이루어지는 20대 중반(만24, 25세)에 NEET 위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일자리로 이행하지 못하고 분절되는 한국의 현실과 부합한다.

넷째, 서열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NEET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위와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좋을수록 더 높은 서열의 기간범주에 속할 확률의 유의하게 낮아졌다.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져 일과 학업으로부터의 배제의 위험이 시사된다.

## 제2절 연구의 함의

###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NEET로 진입하는데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NEET로 진입하게 된 원인이 개인특성으로 인함인지,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함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인이행과정을 적실성 있게 설명해주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에 주목하였다. 개인화에 의하면 청년들은 개인의 책임, 성장 및 발달을 추구하면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열등한 배경을 가진 청년일지라도 부정적 삶의 경험을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Arnett, 2006; Banks et al., 1992; Beck, 1986; Beck & Beck-Gernsheim, 2002; Jones & Wallace, 1992). 그러나 한편 여전히 가정배경과 같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요소가 남아 있어 청년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화(stratification) 관점도 존재한다(Bynner, 2005; Bynner & Parsons, 2002; Thompson, 2011; Yates et al., 2011). 이는 NEET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기도 하다. 즉, NEET를 개인의 자질 및 태도의 문제로 바라보는지와 구조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양분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개인적 요인(성적, 자아 개념)이 NEET 진입에 영향을 미치나 여전히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가구 소득)이 매우 중요한 NEET 위험요인임이 드러났다. 즉, 개인이 일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을 개인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 가구에서 NEET 위험가능성이 저소득 가구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은 청년 NEET 문제가 부유한 가정의 나태한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기존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나승호 외, 2013;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Eurofound, 2012; Noh & Lee, 2017; Shinozaki, 2012). NEET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론적 논의를 통해 NEET 문제의 논점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NEET 집단 안에서도 일할 의욕이 없는(do not express a desire to work) 청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이다. 이 집단은 NEET 내에서도 핵심정책대상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시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다. 또한 구직의사가 있는 NEET 유형에 비하여 NEET로 진입하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집단에 주목하여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연령에 따른 NEET 위험확률을 추정하여 NEET 위험이 높은 시기를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채창균 외(2008)의 연구에서만 24세 무렵까지는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그 속도가 완만해지고, 24세가 지나면서 NEET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비록 2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후의 시기까지는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만24세에 NEET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NEET로부터 생존할 확률(NEET상태에 빠지지 않을 확률)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 학력 수준이 고졸이하일수록, 가구주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더 낮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NEET 연구에 사건사 분석을 접목한 첫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다.

넷째, 청소년기의 특성이 부분적으로나마 20대 전반부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비록 종단연구는 아니지만 연령별 위험도를 고려하였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기(만18세)에서 청년기(만19세~25세)로 이행하는 시기를 살펴보았다. 청소년기의 가구 특성과 개인특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NEET로 진입하거나 고착되기 전 예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가구주가 직접 응답한 설문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보다 객관적인 가구소득 자료

를 활용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특기할만한 점이다.

다섯째, 패널데이터의 표본유실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점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20대로 진입하는 전환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남성표본이탈 문제가 제기되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전역 후 다시 조사에 응하는 사례가 상당 수 관찰 되어, 본 연구에서는 입대 및 전역시기가 확인 된 사례는 NEET가 아니었던 상태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본 연구는 표본유실로 인한 정보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여섯째, 청년기 NEET 여부만이 아닌 기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분석결과,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하는 집단이 가구소득이 더 낮고, 성적이 나쁘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NEET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 NEET를 탈출하지 못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거나 학업성적도 낮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NEET 청년 문제는 개인적 접근만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NEET를 개인의 동기부족, 역량의 문제로 보았던 기존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대 초반에 일할 수 있고 하다못해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는 것을 청년 개인의 태도와 선택의 문제라고만 바라보는 것은 자칫 NEET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 특별히 가구소득의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빈곤이 NEET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EET 중에서도 구직에 대한 의욕이 없는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이 구직에 의욕이 없는 것은 단지 잠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다. 이들이 더 오랜 시간 NEET 상태에 고착되어 일찍이 일본에서 문제가 된 히키코모리처럼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장기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청년이 직접 서비스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NEET 위험이 높은 청소년 및 청년을 추적하여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떤 청소년이 NEET 위험이 높을지 예측하고 이들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임상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NHR(NEET-Hikikomori Risk Factors) 척도를 개발하여 사회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은 심리적 기질을 진단하고 있다. NHR 척도는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경향, 자기 유능감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열망을 측정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 및 청년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단순히 취업 알선만이 아니라 다각적 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the Regional Youth Support Station; RYSS)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전역에 다수의 RYSS 센터가 있으며, RYSS는 개인상담,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 취업알선, 동료지원(peer support), 비영리기관 아웃리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의 실천현장에서는 희망플랜이 시행되고 있다. 희망플랜은 NEET 비율 감소를 위해 14-24세 성인이행기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기반 지원체계를 발굴하고 조직하여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NEET에 대한 다각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고, 그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및 청년을 둘러싼 가정 환경에 대한 지원, 개인 심리적 지원서비스, 취업알선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섯째, 구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선 연구 결과 NEET 위험이 20대 전반부 보다 중반부에 더 높으며, 24세 시점에 가장 높고 25세 시점에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24세 즉, 교육에서 고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이 연령에 NEET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때 학업-취업 사이에 분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U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는 학업 후 직장으로 잘 연계되도록 만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직할 경우 4개월 이내에 교육과 노동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도 교육 및 고용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인이행과정에 주목하였으나 NEET로 이행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NEET 진입요인은 검증하였지만 NEET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경험을 밝히지 못했다. 사건사 분석에서 의미하는 이 ‘기간(duration)’은 비NEET지속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은 실제로 매우 이질적이며 그 의미 또한 모호하다. 향후 분석방법의 보완을 통해 이 진입까지의 과정이 교육인지, 고용인지, 군복무기간인지, 기타 비경제활동 상태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NEET 상태로 빠지게 되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영향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만18세 시점으로 보았다. 이는 학교에서 직장 또는 상위 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어린 시절의 특성변수를 활용하여 청소년기의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미시적 수준의 가구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와 개인특성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코호트, 거주지역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청년의 NEET 진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거시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차이이지만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 간의 특성차이를 포착하여 반영하지 못했다.

넷째, 변수 측정의 문제이다. 연구문제3에서 NEET 기간을 측정할 때 7년 중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0, 1회 NEET를 경험하면 1년, 2회 NEET를 경험하면 2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NEET를 정의할 때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요 문항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측정값 1을 1년 NEET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2차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NEET를 경험한다는 해석으로

이러한 오류를 막고자 했다.

다섯째, 첫 번째 주기(spell)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록 반복 NEET 비율(8.3%)이 낮지만, 이들이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반복주기를 고려하여 청년기의 가변적인 지위변동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열 로지스틱 분석 시 7년 연속 조사에 응한 2,591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앞선 사건사 분석의 결과를 확장하여 해석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향후 연구에서 NEET 진입 과정에 대한 고찰, 장기적인 청소년기 요인 검증, 보다 정확한 NEET 측정문항의 활용, 외생변수의 통제, 반복주기의 포착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영배. (2005). 청소년의 직업불안정화 현상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3), 21-47.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구인회, & 김순규.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금재호, 전용일, & 조준모. (2007). 한국형 니트(NEET)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교성. (2005).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253-275.
- 김기현. (2005). [일본] 니트 (NEET): 일본 청년무업자 (若年無業者) 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3(5), 55-63.
- \_\_\_\_\_.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2017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9-53
- 김미숙. (2009). 일본의 니트 (NEET) 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73-199.
- 김선애. (2014). 청년발달과 이해. 서울: 창지사.
- 김소영. (2016).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영, & 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 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은정. (2014). 20 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 (Emerging Adulthood) 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17(3), 83
- 김종성, & 이병훈. (2012). 대졸청년층의 비경활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중 단연구.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 (NEET) 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97-110.
- 김현주, & 이병훈. (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차. *제 6 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79-198.
- 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 임준혁. (2013).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2013-15).
- 남재량. (2006). 청년 니트 (NEET) 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 7 회 노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 140-157.
- \_\_\_\_\_. (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1). 최근 청년 니트 의 현황과 추이 (NEET). *노동리뷰*, 29-40.
- \_\_\_\_\_. (2012). 고졸 NEET 와 대졸 NEET. *노동리뷰*, 39-54.
- \_\_\_\_\_. (2013). 청년 니트, 새로운 글로벌 청년고용 지표 가능성. *국제노동브리프*, 11(5), 1-3.
- 남재량, & 김세움. (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 (NEET) 의 특징 및 노동 시장 성과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류기락. (2012). 과연 유연한 노동시장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가?-OECD 주요 국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페이퍼*.
- 민인식, & 최필선. (2012).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 박미희, &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미희. (2017). OECD국가의 청년NEET 결정요인 연구-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가열, & 천영민. (2016). 대졸자 관참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분석: 본인 노력 대 가계 배경을 중심으로.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
- 방하남, & 김기현. (2000).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 2 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_\_\_\_\_.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한국사회학*, 37(4), 31-65.
- 변금선. (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5.
- 심경섭, & 설동훈. (2010).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3(2), 33-59.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7.
- 이로미, 박가열, & 정연순. (2010).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 이봉주, 김선숙, & 김낭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재열, 강상진, 방하남, 이명진, 박경숙, 은기수, 한준. 이운석 (2005).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현주. (2012). 빈곤층의 근로 동기에 대한 탐색: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9(4), 31-57.
- 임유진. (2016). 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기영. (2008). 대학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사회경제적 배경, 교육특성 및 이행준비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원섭. (1997). 대학 졸업자의 구직 활동과 노동 시장에서의 성공. *교육사회학연구*, 7(1), 145-163.
- 장상수. (2008). 청년층의 학교 직장 이행. *한국사회학*, 42(6), 106-139.
- 장상수, & 손병선. (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9(4), 198-230.
-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_\_\_\_\_.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원오, & 김연아. (2015).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과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46(1), 85-109.
- 주희진, & 주효진. (2017).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51-74.
- 최용환. (2015).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NEET)’ 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4), 85-115.
-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김기현, & 남기곤. (2008). 유휴 청년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홍세희, & 김지연. (2006). 비연속시간 사건사 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의 문제행동 발생시점에 대한 부모영향과 성별의 상호작용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37-154.
- Allison, P. D. (2002). Missing data: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 Psychology*, 55(1), 193-196.
- \_\_\_\_\_. (2014). Event history & survival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Vol. 46). *SAGE publications*.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_\_\_\_\_.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 Banks, M., Bates, I., Breakwell, G. M., Bynner, J., Emler, N., Jamieson, L., & Roberts, K. (1992). *Careers and identities*. Open University Press.
- Bauman, Z. (2013). *The individualized society*. John Wiley & Sons.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sation*. London: Sage.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theory*. Columbia, New York.
- Berloffa, G., Matteazzi, E., & Villa, P. (2015). Family background and youth labourmarket outcomes across Europe. *STYLE WP8. 1 Work-poor and work-rich families*.
-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 Blossfeld, H. P., Golsch, K., & Rohwer, G. (2012). *Event history analysis with Stata*. Psychology Press.
- Breen, R. (1996). *Regression models: Censored, sample selected, or truncated data* (Vol. 111). Sage.
- Breen, R., & Goldthorpe, J. H. (2001). Class, mobility and merit the experience of two British birth cohor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2), 81-101.

- Bynner, J. (2005). Rethinking the youth phase of the life-course: The case for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8(4), 367-384.
- Bynner, J., Chisholm, L., & Furlong, A. (1997). Youth, citizenship and social change in a European context. *Ashgate*.
- Bynner, J., & Parsons, S. (2002). Social exclusion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2), 289-309.
- Cefalo, R., Sergi, V., & Giannelli, N. (2015). We are not NEET": How categories frame (mis) understanding and impede solutions. *Quaderni di Economia, Matematica e Statistica-Università di Urbino Carlo Bo*, 8.
- Carcillo, S., & Königs, S.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OECD Publishing*.
- Caspi, A., Wright, B. R. E., Moffitt, T. E., & Silva, P. A. (1998). Early failure in the labor market: Childhood and adolescent predictors of unemploymen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4-451.
- Chandler, M. J., Lalonde, C. E., Sokol, B. W., Hallett, D., & Marcia, J. E. (2003). Personal persistence, identity development, and suicide: A study of Native and non-Native North American adolescen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138.
- Coles, B., Hutton, S., Bradshaw, J., Craig, G., Godfrey, C., & Johnson, J. (2002). Literature review of the costs of being"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at age 16-18.
- Coles, B. (2005). Youth and Social Policy: Youth citizenship and young



careers. *Routledge*.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Erikson, E. (1968). *Youth: Identity and crisis*. New York, NY: WW.
- Evans, K., & Furlong, A. (1997). Metaphors of youth transitions: niches, pathways, trajectories or navigations. *Ashgate*.
- Evans, K., & Heinz, W. R. (1994). *Becoming Adults in England and Germany*. BEBC, 15 Albion Close, Parkstone, Poole, Dorset BH12 3LL, England, United Kingdom (18 British pounds).
- Fergusson, R., Pye, D., Esland, G., McLaughlin, E., & Muncie, J. (2000). Normalized dislocation and new subjectivities in post-16 markets for education and work. *Critical Social Policy*, 20(3), 283-305.
- Furlong, A., & Cartmel, F. (1997). Risk and uncertainty in the youth transition. *Young*, 5(1), 3-20.
- \_\_\_\_\_ (1999). Social change and labour market transitions. *Education, Training and the Future of Work I: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of Policy Development*, 219-35.
- Furlong, A. (2007). The zone of precarity and discourses of vulnerability: NEET in the UK (Comparative Studies on NEET, Freeter, and Unemployed Youth in Japan and the UK). *人文学報. 教育学*, 42, 101-121.
- Furlong, A. (2008). The Japanese hikikomori phenomenon: acute social withdrawal among young people. *The sociological review*, 56(2), 309-325.
- Genda, Y. (2007). Jobless youths and the NEET problem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0(1), 23-40.
- Grusky, D. B. (1983). Industrialization and the status attainment process: The thesis of industrialism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4-506.

- Grusky, D. B., & Ku, M. C. (2008). Gloom, doom, and inequality.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3, 2-28.
- Gujarati, D. (2014). *Econometrics by example*. Palgrave Macmillan.
- Gujarati, D. N. (2009). *Basic econometrics*. Tata McGraw-Hill Education.
- Haller, A. O., & Portes, A. (1973). Status attainment processes. *Sociology of education*, 51-91.
- Haller, A., & Woefel, J. (1972). Significant others and their expectations: Concepts and instruments to measure interpersonal influence on status aspirations. *Rural Sociology*, 37(4), 591.
- Hutchinson, J., Beck, V., & Hooley, T. (2016). Delivering NEET policy packages? A decade of NEET policy in England.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9(6), 707-727.
- Hyejin, N., & Bong, J. L. (2017). Risk factors of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in South Korea: An empirical study using panel dat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7(1), 28-38.
- Inui, A. (2005). Why freeter and NEET are misunderstood: recognizing the new precarious conditions of Japanese youth. *Social Work & Society*, 3(2), 244-251.
- Jencks, C., Crouse, J., & Mueser, P. (1983). The Wisconsin model of status attainment: A national replication with improved measures of ability and aspiration. *Sociology of Education*, 3-19.
- Jones, G., & Wallace, C.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Open Univ Pr.
- Judge, T. A., Erez, A., & Bono, J. E. (1998). The power of being positive: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self-concept and job performance.

- Human performance*, 11(2-3), 167-187.
- Kelly, E., & McGuinness, S. (2015). Impact of the Great Recession on unemployed and NEET individuals' labour market transitions in Ireland. *Economic Systems*, 39(1), 59-71.
- Keniston, K. (1971). Youth and dissent: The rise of a new opposition. *New York: Harcourt*.
- Kline, R. B. (2005).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in, 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 Maguire, S. (2015). NEET, unemployed, inactive or unknown—why does it matter?. *Educational research*, 57(2), 121-132.
- Mascherini, M. (2012). Young people and NEETs in Europe: First findings. *Eurofound, Dublin*.
- Miller, J., McAuliffe, L., Riaz, N., & Deuchar, R. (2015). Exploring youths' perceptions of the hidden practice of youth work in increasing social capital with young people considered NEET in Scotland.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468-484.
- Otto, L. B. (1976). Social integration and the status-attainment pro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6), 1360-1383.
-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Ch3. pp. 31-35.
- Reiter, H., & Schlimbach, T. (2015). NEET in disguise? Rival narratives in troubled youth transitions. *Educational Research*, 57(2), 133-150.
- Roberts, K., Clark, S. C., & Wallace, C. (1994). Flexibility and individualisation: a comparison of transitions into employment in England and Germany. *Sociology*, 28(1), 31-54.

- Roberts, S. (2011). Beyond 'NEET' and 'tidy' pathways: considering the 'missing middle' of youth transition studies. *Journal of youth studies*, 14(1), 21-39.
- Sewell, W. H., Haller, A. O., & Portes, A.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2-92.
- Sewell, W. H., & Hauser, R. M. (1992).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on the Wisconsin Model. *Contemporary Sociology*, 21(5), 598-603.
- Shinozaki, T. (2012). Not by education alone: How young adults' employment status is determined by employment environments and family backgrounds.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5(1), 31-52.
- Singer, J. D., & Willett, J. B. (1993). It's about time: Using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to study duration and the timing of event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8(2), 155-195.
- Stajkovic, A. D., & Luthans, F. (1998).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4(2), 240.
- Styczynska, I. (2013). Enhancing Youth Opportunities in Employment: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48(4), 2016-223.
- Tamesberger, D., & Bacher, J. (2014). NEET youth in Austria: a typology including socio-demography, labour market behaviour and permanence.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239-1259.
- Thompson, R. (2011). Individualisation and social exclusion: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Oxford Review of Education*, 37(6), 785-802.
- Uchida, Y., & Norasakkunkit, V. (2015). The NEET and Hikikomori

spectrum: Assessing the risks and consequences of becoming culturally marginalized. *Frontiers in psychology*, 6.

Unit, S. E. (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Wiesner, M., Vondracek, F. W., Capaldi, D. M., & Porfeli, E. (2003). Childhood and adolescent predictors of early adult career pathway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305-328.

Yates, S., & Payne, M. (2006). Not so NEET? A critique of the use of 'NEET' in setting targets for interventions with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studies*, 9(3), 329-344.

Yates, S., Harris, A., Sabates, R., & Staff, J. (2011). Early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fractured transitions: a study of entry into 'NEET' status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40(3), 513-534.

## Abstract

# **The impa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during adolescence on NEET risk and duration**

Ha, Eunsol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young people have been increasingly suffering from social exclusion. As a representative index, the number of youth who ar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s increasing worldwide. In Europe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NEET youths between the ages of 16 and 24 has increased sharply, and this trend has further intensified since the 2008 economic crisis. South Korea's NEET rate is the seventh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with NEETs comprising approximately 1.63 million out of a total population of 9.51 million young people (OECD, 2015).

The narrowest definition of NEET refers to young people who are

not motivated to work, while the broadest definition includes those who are seeking jobs or seeking opportunities to get a better job (Genda, 2007). In this study, NEET is defined as those who do not express a desire to work. It remains unclear why such people are not willing to work. Some people think that the problem lies in individuals' attitudes and abilities, while others view it as a result of structural constraints.

There are two perspectives concerning NEET determinants: individualization and stratification (Bynner & Parsons, 2002; Thompson, 2011; Yates et al., 2011). The individualization perspective views NEET as a matter of voluntary decision or determination (Furlong, 2006). By contrast, stratification takes the view that social structural inequalities, such as family background, remain important predi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Yates et al., 2011). According to this view, seeing the cause of NEET as a private issue overlooks socioeconomic factors (Bynner, 2005; Bynner & Parsons, 2002; Thompso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adolescents affects NEET risk. It also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such factors on NEET duration, reflecting the high risk of adherence to the condition for those groups that repeatedly experience NEET. Therefore, the study po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1) Does NEET risk probability vary according to age?
- 2) What are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NEET risk among youth?
- 3) How do the determinants related to adolescence affect NEET duration?

In order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nd an ordered logistic analysis were carried out based on data

from the 1st to 11th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First, the study used the life table method and discrete-time logit, which is a kind of analysis of event history, to predict when NEET risk is highest (research question 1) and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NEET risk (research question 2).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se determinants on NEET duration was analyzed using ordered logistic analysis (research question 3). The individual-level variables, based on individualization theory, were 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self-concept, and future planning. In addition, family-level variables, including household income, householder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er unemployment, were selected based on stratification theory.

In terms of the results, the probability of NEET risk was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age, while the probability of cumulative NEET survival var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supporting the hypothesis related to research question 1). Of those aged between 19 and 25, 24-year-olds had the highest risk of becoming NEET (3%). There seems to be a particular risk of becoming NEET at this age, when it is expected that a young person should have transitioned from education to employment. Lower household income, lower householder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e), and unstable householder employment were also related to lower NEET cumulative survival rate.

As a result of the discrete-time event analysis, it was seen in both Model 1-1 and Model 1-2 that the lower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risk of NEET. In Model 1-2, in which individual-level variables were introduced stepwise to Model 1-1, onl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ed NEET risk.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academic achievement in high school, the higher the NEET risk. However, the influence of family characteristics was also implied. Only a



part of the hypothesis related to research question 2 was support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household income category showed that NEET risk was higher in the lowest income group (lowest 10%) than in the highest income group (highest 10%), which goes against the common perception that people who grow up in wealthy families tend to fall into NEET. When these results were summarized, it was confirmed that NEET is linked to the issue of poverty, not just to individuals' attitudes and abilities.

As a result of the ordered logistic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NEET duration were found to be similar to those mentioned above, with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longer-duration category decreasing as household income was higher and grades were better.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worse the grade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NEET repeatedly, which can lead to the risk of exclusion from work and schooling. This supported some of the hypotheses related to research question 3.

The study found that there is structural inequality related to becoming NEET and being unwilling to work. It confirms that the NEET youth problem is linked to the problem of poverty, which demonstrates the need to approach this issue from a social-level rather than individual-level approach.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ffect their future life course and therefore need to be approached prophylactically.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for policy design to consider the age at which risk is highest.

Key words : youth NEET, NEET risk, NEET duration, Individualization and Stratification, Event history analysis, Survival analysis

Student Number : 2015-22554